碩士學位論文

基督教 禮拜 舞蹈의 靈的
機能에 대한 研究

2003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舞蹈學科

舞蹈理論 專攻

金 賢 靜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申吉秀

基督教 禮拜 舞踊의 靈的
機能에 대한 研究

Study on the Spiritual Function of Christian Worship Dance

2003년 월 일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舞踊學科

舞踊理論 專攻

金 賢 靜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申吉秀

基督教 禮拜 舞踊의 靈的
機能에 대한 研究

Study on the Spiritual Function of Christian Worship Dance

위 論文을 舞踊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3년 월 일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舞踊學科

舞踊理論 專攻

金 賢 靜

金賢靜의 舞踊學 碩士學位論文을 인정함

2003年 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目 次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	2
II. 기독교 예배무용의 이론적 배경	4
1. 기독교 예배의 이론적 배경	4
2. 기독교 예배무용의 역사적 배경 (A.D.100 - 1700)	11
3. 기독교 예배무용의 유형	25
III. 기독교 예배무용의 영적인 기능	31
1. 영혼의 치유와 회복으로서의 기능	32
2. 기도와 응답으로서의 기능	41
3. 영성의 깨달음과 개발로서의 기능	47
4. 전도와 선교의 기능	53
IV. 결론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독교의 신학적 측면에서 창조된 예배무용은 최근 수십 년간 교회의 부흥에 있어 정규예배무용과 자발적인 선교무용을 포함해 재발견되어 왔으며, 모든 종류의 경배와 찬양과 함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기독교 공동체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독교가 성립된 이후 교회 안에서의 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권장되었으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무용은 예배가운데 찬양의 한 방법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수용되면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또한 “속도의 시대”인 21세기는 인터넷 선교는 물론이고, 열린예배¹⁾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문화적인 언어를 이용한 찬양, 예배무용, 드라마, 뮤지컬, 중보기도²⁾, 비전 문화 선교 등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선교의 한 수단으로 정착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본 논문은 신학적 이해와 성서를 근거로 하여 예배무용의 영적인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예배무용이 성서 표현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기독교의 긍정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여러 측면을 표현할 수 있음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열린예배 : 믿지 않는 세상사람들에게는 따분하고 졸리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진 예배를 그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현대적인 감각의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는 음악장르가 생겨나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했고, 다양한 문화적 접근으로 보다 쉽게 세상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시도하게 되었다. 열린예배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걸음씩 예배로 나아오게 한다. 미국의 새들백처치나 윌로우크릭처치 등을 통해 알려진 열린예배는 구도자예배(Seeker Service)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극장식 예배공간을 비롯하여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한 공연형식의 예배는 곧 빠른 속도로 퍼져갔고 지금까지 그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http://www.gemf.org>

2) 중보기도 仲保祈禱 (bidding prayer) : 전체 교회나 국가 또는 남을 위한 기도. 오늘날 의미하는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겸손한 마음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http://kr.encycl.yahoo.com>

인류와 함께 해온 무용의 역사 중에 종교무용의 한 형태인 예배무용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무(鼓舞)시키며 성도들에 있어서 영성의 훈련과 교육을 하고 더불어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간의 삶의 한 양상을 연구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³⁾. 또한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의 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로서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움직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몸의 움직임을 통한 이러한 동일시는 기독교적 의지를 강화시키고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다.

예배무용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살아있고, 움직이고, 숨쉬는 출현이며, 보는 이와 추는 이들로 하여금 종교적이며 영적인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또한 예배무용은 성령의 내적 역사와 오늘날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외적 표현에 대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고 말씀이 체현됨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의 체현은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동인(動因)이 되며 성도들의 공동체 결합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한 예배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한 예배무용이 될 수 있도록 예배무용의 영적인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예배무용의 가치를 재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문헌조사와 분석에 의존한 문헌 연구로서 성서에 나타난 움직임에 관련된 내용과 기독교 무용에 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고찰되었다. 문헌상 예배무용에 대한 기록을 접할 수 있는 초대 교회시대부터 르네상스시대까지의 역사를 토대로 연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예배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움직임과 무용의 필요성과 역할을 제시하며, 기독교 예배무용이 갖는 영적인 기능을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예배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의 예배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고찰했다.

3) 김충환, "Worship, Praise and Worship dance(예배, 찬양, 그리고 예배 무용)", 신학이해 21집, 2001, p.202

둘째로, 성서전승과 예배 무용간의 다양한 관계를 성서 전승의 시기로부터 18세기까지 살펴보았으며, 교부(church Father)나 주교(bishop)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예배무용을 고찰해 보았다.

셋째로, 기독교 예배무용의 유형을 다섯 가지 형태인, 행진무용(Procession dance), 선언무용(Proclamation dance), 기도무용(Prayer dance), 명상무용(Meditation dance), 축하무용(Celebration dance)으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았다.

넷째로, 기독교 예배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기능으로서 첫째,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성서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예배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신앙 생활에 무용을 포함시켜 몸과 영의 일치로 일어나는 성 육신적인 치유를 다루었다. 둘째,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불어 하나님께 온 몸으로 드리는 기도와 응답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셋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의 이해를 기초로 예배무용으로 얻는 영성의 깨달음과 개발을 고찰해 보았다. 넷째, 예배무용이 가질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기능으로 복음 전도의 측면으로서의 예배무용과 영혼구원의 선교로서의 예배무용의 사용을 고찰해 보았다.

II. 기독교 예배무용의 이론적 배경

1. 기독교 예배의 이론적 배경

예배라는 말의 우리말 뜻은 신을 신앙(信仰)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우리말의 뜻은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는 예배란 말이 사용되었던 형편과 시기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⁴⁾

“예배”로 번역된 구약성서의 중요한 용어는 첫째로 하다, 만들다, 숭배하다, 복종하다를 뜻하는 “아바드(Abad)”이다. 본래 이 말은 노예나 고용된 종들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면서부터 제물을 드리는 봉사와 레위인들의 회막에서의 봉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사 19:21, 렘 44:3).⁵⁾ 두 번째 용어는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엎드리는 것을 뜻하는 “샤하아(shachah)”이다. 이 용어와 비슷한 다른 용어들이 나타내는 구약 성서의 관념은 종교적인 숭배, 순종, 봉사의 개념을 겸하여, 마음 혹은 몸 그렇지 않으면 마음과 몸의 존경을 표시하는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고 “머리 숙여 경배(예배)했다”(출43:1).⁶⁾ 구약에서 사용된 이상과 같은 어휘 속에 나타나는 뜻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복종의 생활이 예배자들의 중요한 삶의 근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가장 흔히 예배를 가리키는 헬라어의 용어는 “프로스큐네오 - proskuneo(proskuneo)”인데 그 문자 적인 뜻은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혹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 앞에 자신을 엎드리는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혹은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와 관련되어 사용하기도 했으나 신약성서에서는 신성한 대상에만 관련하

4) 정장복, 「예배학 개론」, 종로서적 출판사, 1993, p7

5) 김소영, 「예배와 생활」,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2, p.30

6) Franklin M. Zeigler, 정진황 옮김, 「예배학 원론」, 요단출판사, 1979, p.18

여 사용하였다.

영어에 있어서 예배는 "worship" 이다. "worship"은 본래 앵글로 색슨어의 "weorthscipe"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가치(worth)"라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이 말의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이다.⁷⁾ 이 말의 뜻의 좀더 구체화시키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to ascribe to Him supreme worth)"이란 뜻이 된다. 이러한 표현은 성서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시 29:2)라고 표현한 경우와 계시록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 하도다(계2:12)" 라는 표현 등이 모두 이 뜻을 가지고 있다.⁸⁾

이러한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응답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제공되고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참다운 만남이다.⁹⁾ 이와 같은 예배는 우리 인간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 응답인 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므로, 예배의 중심부에는 반드시 자신을 인간에게 알게 하사 성육과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 그후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참회와 감사와 헌신과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¹⁰⁾

둘째,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나 사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7) Abba, Raymond, 허정삼 옮김, 「기독교예배의 원리와 실제, 대한 기독교서회, 1974, p.9

8) 정장복, 「예배학 개론」, 종로서적 출판사, 1993, p.9

9) Franklin M. Zeigler, 이정희 옮김, 「목회학 개론」, 요단출판사, 1977, pp.225-226

10) Abba, Raymond, 허정삼 옮김, 「기독교예배의 원리와 실제, 대한 기독교서회, 1974, pp.14-15

하나님은 어떤 관념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전인¹¹⁾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시며 초월적 분이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기독교론에 근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기독교 예배의식은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승천까지 이르는 그 동안에 이룩하신 완전한 예배 행위인 그의 직무에 근거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²⁾

넷째, 기독교 예배는 성령론에 근거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얻는 감동과 변화는 모두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확신케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또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¹³⁾

다섯째, 기독교 예배는 교회론과 같이 연결되어 표현된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봉사를 드리며 인간성을 성화시키는 일을 증진케 해야한다.

“인간의 행위 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행위는 없다”라고 전제할 때 예배에 있어서 제일의 목적은

11) 전인(全人) Homo Totus : 지(知)·정(情)·의(意)가 조화를 이룬 원만한 인격자. 성서가 이해하는 인간관은 “몸과 영”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통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에서의 영의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무한한 생명력이며, 신약에서의 영의 개념도 예수그리스도와 새롭게 난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 결국 성서가 말하는 인간관은 영육의 통일체, 전인(全人)으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오세훈, 「그리스도적 인간관」,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58

12) 김기현, 「한국교회의 예배와 생활」, 양서각, 1984, pp.22-23

13) 위의 책, pp.24-25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소영 교수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¹⁴⁾하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예배를 통하여 성도가 완성되고 죄인이 개종하는데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지만, 결국 그 모든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¹⁵⁾

사도 바울은 고전 14:1-19에서 예배의 목적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솔라이어마하는 예배의 목적을 “경건한 영의 자기 계시”라고 하였으며, 초기 루터는 “죄인의 개종” 또는 “공중의 교육”이라고 하였고, 경건주의자들은 “성도의 교제”를 예배의 목적으로 보았다.¹⁶⁾

이것을 종합해 보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둘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 셋째, 교회에 덕을 세우고, 넷째, 세상에의 충실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배는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그 예배를 통하여 교육을 받게되어 변화가 일어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학자인 존 웨스턴 호프에 의하면 “예배를 기독교 훈련의 열쇠”로 인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곧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그 가르침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예배는 교육을 한다. 둘째, 예배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즉 공동체적 행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예배는 축제 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참여한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준다. 넷째, 예배는 전통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다. 다섯째, 예

14) 임재 臨在 (presence) :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 일반적으로는 왕이나 황제가 그의 지방 중 한 곳을 방문할 때 사용한 공식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구약성서에는 성막의 영광스러운 구름과 그 외에도 여호와와 사자, 진설병, 언약궤 등을 언급한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신약성서는 하느님이 살아계신 임재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다. 종말론적인 의미의 임재는 그의 속함을 받은 백성과 함께 훗날 그의 임재함과 더불어 재림한 그리스도의 당도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http://kr.encycl.yahoo.com>

15) 구교환, 「예배의 역사를 통해 본 오늘의 예배연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57

16) 김소영, 「예배와 생활」,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2, p.40

배는 역사 안에 존재하며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와 관계를 가진다.¹⁷⁾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서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예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구약시대는 예배공동체의 형성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특징 짓는다면 그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그들의 생활에서 신앙과 예배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이스라엘을 유기적 공동으로 묶었던 것은 그들의 공통된 신앙이었고 이 신앙은 예배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출애굽기3:12)”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바로 에게 나아가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여호와와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애굽기8:1)”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걱정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배를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백성의 출애굽의 역사는 속박과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구원의 주체자 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공동체로 변화되었다.¹⁸⁾

둘째로, 언약갱신의 예배로써 실제로 이스라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었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구속의 역사 속에 예배의 회중은 같이 참여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과거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예배의식을 통하여 반복되고 재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의 전승은 예배를 통하여 세대적으로 계속 전달될 수 있었다.

셋째로, 구약의 이스라엘 예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회복을 위한 예배였다. 희생의 예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레위기1:1-7:38)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의 역사는 예배 회중들의 신앙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여호수아24:14-24),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요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예배형태가 인간들의

17) 배일제, 「개신교 예배에 대한 예술적 접근: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감리교 신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2, pp.8-10

18) 박준서,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 기독교사상 2월호, 기독교서회, 1979, p.47

창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계시함으로써 구약의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인간들의 응답으로 나타난 행위는 이차적인 것이었다.¹⁹⁾

신약시대의 예배는 첫째,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로써, 구약의 창조주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시고 인간을 위하는 그의 사랑을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나타나시며,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에서 제사로 예배되었던 것을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유대교의 제사와 의식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과 부활을 중심한 역사적 사건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충족시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되었다.

신약교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생활에서 충분하고 완전한 예배의 생활을 맛보았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과거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속의 은총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둘째로,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Pentecost)로 시작되는 공동체적인 신약시대의 교회 예배의 기초를 세우셨으니 그 하나는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다(요4:24). 둘은 신약의 예전인 성례전의 제정(성찬식-마태복음26:26-29. 고린도전서11:23-29. 세례식-마태복음28:19-20)이다. 셋은 예수그리스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완전히 성취시킨 것이다.²⁰⁾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presence)는 성령과 말씀에 의한 임재로서 그것은 말씀의 설교와 성찬식에 의하여 잘 표현한다.

셋째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예배로써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임재 하셔서 그의 백성은 예배에 임재 하시는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영적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는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사랑, 충성, 복종, 헌신으로 응답하는 예배이며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서 변화를 받고 그의 계시를 날마다 새롭게 응답하는 예배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배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

19) 문희석, 「하나님의 구속역사」, 보이서사, 1973, p.185

20) 김소영, 「예배와 생활」,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2, p.22

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고한 가치를 선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계시하셨고 지고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셨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²¹⁾ 이런 점에서 예배의 시작은 인간의 노력이나 설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과 사랑에 기인하며,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를 인지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분명히 감지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21) 박성민, 「예배형식의 역사적 고찰」, 서울신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4, p.6

2. 기독교 예배무용의 역사적 배경(A.D.100 - 1700)

무용의 발달과정에서 중세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로 무용역사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 중세의 정신적 기반이었던 기독교사상은 중세인의 생활을 지배하는 원리였으며, 중세문화 또한 기독교적인 것으로 모든 예술부분의 성격도 기독교적인 것이 지배적이었다. 유대교나 기타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 초기 그리스도교가 무용을 장려하고 신성한 무용이 교회의 종교의식에 채용되었다는 사실은 예배무용이 바실리카(Basilica)내에서 선도하는 신부와 신도가 더불어 엄숙하게 거행하고 있던 사실에서나 천사의 무용이 그리스도교 미술의 제재에 많이 쓰인 사실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는 무용을 종교의식의 수단으로써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 이렇게 중세 초기에는 예배의 수단이자 교회의 포교의 수단으로 무용을 장려하여 종교적 가치가 대두되었으나 말기로 갈수록 세속적으로 변질되어가자 기독교의 교리인 엄격한 금욕주의에 의해 금지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예배무용이 역사적인 교회의 흐름 속에서 현저하게 변화를 이룬 기간에 착안하여 초기 기독교회(A.D.100)로부터 르네상스(A.D.1700)까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문헌을 통해 교부(church Father)나 주교(bishop)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예배무용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기 기독교회(A.D.100 - 500)

초기 5세기 동안 기독교회에서 무용은 허용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교(Judeo-Christian)전통의 바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춤을 통한 찬양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는 히브리인들의 전통 때문으로 본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로마제국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받아왔다. 4세기의 환경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무용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신앙에 있어서 무용의 역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공연과 무용의 역사에서 이 시점은 새로운 발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표면상 제한적이었던 당대에 교회는 실질적으로 사회의 새로운 물결을 조성하였고 교회무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약은 무용에 대한 몇 가지의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의 반응에 대한 허락된 표현으로서의 무용의 증거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태복음 11:17)”의 구절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위한 춤으로 “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누가복음 15:25)”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몸은 성스러운 영의 사원이며 때문에 그들은 몸을 통한 찬양이 필요하다(고린도전서 6:19-20)” 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육체적 움직임은 찬양의 표현을 위한 허락된 부분이며 성스러운 손을 들어 찬양하라(디모데전서 2:8)”고 말하고 있다.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손을 머리위로 들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하는 행위 역시 몸을 통한 찬양의 행위와 연관된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연구는 신약에서 기존에 생각되었던 것 보다 더 많은 춤에 대한 긍정적 언급을 찾아내고 있다. 예수가 말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아람어²²⁾에서 “rejoice”라는 단어는 “danc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의 재해석으로 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략 A.D.120년으로 추정되는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는 중요한 성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작별을 고하는 예수는 성찬의 의식, 로마 기독교의 상징적인 기초와 카톨릭 미사의 원천을 확립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대신에 춤을 추었다.²³⁾

초기 교회의 기록들에 의하면 무용은 가장 기쁘고 성스런 찬양의 형태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기 로마 교회의 태도는 그 사회적 배경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3세기에 들어 그레고리의 저서에 춤에 대해 더욱 자세한 증거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교회의식과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영적인 감사와 순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위대한 증거로도 남아있다고 할

22) 아람어 (Aramaic language) : 시리아 등지에서 BC 9세기의 아람어 비문(碑文)이 출토되고 있다. BC 8세기에 아람인이 상업민족으로서 서아시아 각지에서 활약한 후부터 아람어는 국제통상용어가 되고, 아시리아나 신바빌로니아에서는 외교용어가 되어, 고대 페르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까지 퍼졌다. 알렉산드로스대왕의 침입 이후 그리스어의 공용어화에 따라서 아람어는 동방파와 서방파로 분열되었다. 서방파(西方派)에는 구약성서에서 쓰이는 아람어나 사마리어, 또 그리스도가 사용하던 팔레스티나 아람어 등이 있는데, 시리아의 일부에서는 현재도 쓰이고 있다. <http://kr.encycl.yahoo.com>

23) 서정자, 「서양 무용예술사」,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1997, p.135

수 있다.

4세기에는 교회에서 행하여진 무용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것으로 그는 기독교를 인정하였고 교회에 대한 지원을 인정하였다. 로마제국은 A.D.378년에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와 교회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4, 5세기 동안에는 무용이 찬양에 있어 많은 방면에서 죄스럽고 타락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 초기의 교부의 저작에서는 교회의 무용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Palm Sunday의 설법(A.D.367)에서 다음의 페스티발에 대한 묘사를 보면 “최고의 찬양, 시온의 딸, 기뻐 날뛰네, 모두 껴안네, 왕은 다시 다가와 다시 노래하고 다시 뛰어오르네....” 이러한 묘사는 의식에 있어서 춤의 역할을 아직까지는 호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교회의 리더들은 이 시대부터 육체적 움직임을 통한 찬양을 기피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고 춤을 단순한 본능적 움직임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교회에서 일어난 무용에 대한 또 다른 예는 367년에 사이프러스의 주교인 에피파니우스(Epiphanius)가 행한 설교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그의 설교가 의식의 영적인 측면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추어진 무용도 잘 묘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4세기말 밀라노의 감독관 암부로지우스(Ambrose)²⁴⁾는 신앙적 무용의 가치와 위험성을 정신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명확히 하였다. “왕은 우리에게 춤출 것을 명하였다” 단지 몸을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닌 깊은 신앙을 통하여서 그는 춤을 영적인 찬양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여호와께서 단순히 육신의 몸짓으로가 아니라 그에 대한 경건한 믿음으로 춤출 것을 명하고 있다 온몸으로 돌고 도는 동작에 자신의 육신을 내던지는 자만이 원무에 동참할 권리를 얻듯이 항상 믿음의 절정으로 움직이며 영적인 춤을 추어야 모든 만물의 둥근 원안에 들어가 춤출 권리를

24) 암부로지우스는 신성한 춤의 가치와 이것을 이용했을 때의 위험을 분리하려고 노력했다. 교회의 춤을 영적으로 표출시킬 수단을 찾고 그것을 상징적 춤으로 바꾸려고 애썼던 그는 이렇게 적었다. “주님은 우리가 단지 몸으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추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경건한 믿음을 지니고 춤을 추라 명하신 것이다.” 이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진술이었다.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김명숙 옮김, 「Dance as Religious Studies : 종교와 무용」, 당그래, 2000, p.32

연는다”고 말한다. 또한 카이사르의 주교 바실레이오스(Basileios 344-407) 위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천사들의 원무를 지상에서 모방하는 것만큼 축복 받을 일이 또 있을까?” 그러나 그는 설교에서 술취한 부활절의 축하 연을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회 안의 다른 리더들은 교회 안에서의 무용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크리소스토무스(John Chrysostom A.D.345-407)²⁵⁾는 춤이 있는 곳에 악마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e A.D.354-430)²⁶⁾는 기도자들이 춤추는 것을 금지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춤이 찬송가와 결들여 진다 해도 모든 난폭하고 자유분방한 춤은 비난을 했다. 그러나 명백히 춤이 성서에서 용인되었으므로 모조리 비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춤추는 자는 그냥 춤추게 내버려둬라.”라고 춤을 폄하(貶下)하였고, 결국 기독교인들의 춤은 순교자 성 키프로스의 사례를 따름으로써 모든 육욕의 오점이 정화될 것이라고 제안하기에 이른다.

또한 체사리오(Caesarius A.D.470-542)는 춤을 가장 천박하고 은혜롭지 못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부들의 영향으로 6세기 초기에 이르면서 춤은 교회에서 가장 규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성직자들, 율법가들, 예언자들은 이웃들 사이에서 종교 예배와 연관해서 추는 광란의 춤은 물론 열렬한 춤, 특히 선정적 느낌을 유발하는 형태로 남녀가 함께 모이는 형태의 춤을 단념시키려 했던 것이다.²⁷⁾

25) 크리소스토무스는 신성한 춤에 표현되어 있는 더불어 있음의 의미와 기쁨에 대해 썼다. 그는 성령강림절(Whitsun)축제에 관한 묘사에서, “가장 소박한 춤으로 영적인 춤을 춘” 기독교신자들을 비난했으며 다윗이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춤을 추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춤에서 볼 수 있는 “불건전한 동작들”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받을 주신 것은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신 것이므로 춤을 신성하게 유지시켜야 한다고 여겼다.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김명숙 옮김, 앞의 책 p.32

26) 신성한 춤을 통재 하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고는 더욱 엄했다. 그는 “경솔하거나 불건전한 춤”을 반대했다. 그러나 신성한 축제에 행해지는 모든 춤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춤의 조화 그리고 참가자들 상호간에 영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또한, 예수이후 전체 기독교사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 다음의 위치이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과 안센주의(Jansenism)의 기초를 이룬 것은 근대 초에 이르러 성서와 아우구스티누스를 재발견한 결과이다. 프레데릭 B.아르츠, 홍성표 옮김, 「중세 유럽의 문화유산」 보진재, 1993, p.120

순교자들이 “불멸의 시대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한 신학자인 테오도로스(Theodoret 430)는 “천사의 직업은 천국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가장 영적인 형식의 춤 즉 “육체적으로 자유로운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추는” 춤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성한 춤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미덕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초기 5세기 동안 초기 교회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의 일부로서 이용되어 온 무용을 확립했다.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의미를 전달했던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었다. 예배의식은 항상 인간이 신과 친교 하고자 시도했던 방법들을 반영했고, 춤을 기쁨과 구원 그리고 경배를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인식했다.²⁸⁾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순교자들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의 영적 결속에 대한 기쁨을 상징적 동작으로 표현했다. 그들의 신앙은 단지 어떤 특정한 믿음들에 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풍부한 삶과 영적인 기쁨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춤들을 숙달된 무용수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자격으로 추었던 것이다²⁹⁾. 즉 그들은 자신들의 신체와 무용을 기도와 찬미의 도구로서 이용하는데 익숙했던 것이다.

(2) 중세초기(A.D. 500- 1100)

초기 4세기동안 로마 제국의 몰락은 계급투쟁, 기독교 세계에 대한 침략, 집중적 선교활동 등으로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독재적 상황을 띄게 되어 감을 의미하게 된다. 권위의 정신적 이용과 교회의 관계는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되었으며 교회 안에서의 춤의 이용은 더욱 금지되어져 갔고 이를 이용한 신의 찬양은 점점 약화 되어가게 되었다. 또한 539년 톨레도(Toledo) 협의회는 성자들의 향연과 행렬에서 추는 춤과 노래는 스페인에서 뿌리뽑혀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633년 교회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향연을 벌리는 축제를 비난하였다.³⁰⁾ 그릇된 부류의 춤들을 비난하는 것은 교

27) Jonas, Gerald, 김채현 옮김, 「춤」, 청년사, 2003, p.44

28) 서정자, 「서양 무용예술사」,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1997, p.142

29) Lucinda Coleman, 「Worship God in Dance」, <http://www.pastornet.net.au/renewal/journal6>

30) 배소심, 김영아, 「세계무용사」, 금광출판사, 1985, p.60

리와 예배 의식에서 신도들을 지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합한 종교회의의 직무 가운데 하나였다. 6세기부터 교회와 교회 구내 그리고 신성한 축제에서 풍속을 문란케 하는 춤들에 대한 선전포고는 비단 춤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꾸며진 음악과 미술을 비난하는 일로도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성직자와 속인들 사이에 차이는 예배동안의 권위와 규율의 행사에 의해 발전되어갔다. 라틴어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여 지지 않았으며 점점 더 예배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게 되었다. 합창은 모든 예배의 일부를 차지하였고 일부 계층의 권한이 강하게 지배되는 교회의식은 모든 이의 감정과 찬양을 대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회이론을 대표하는 것으로 의례화 되어 갔고, 예배는 그 스스로가 더욱 억제되어져 갔고 규정되어진 의식이 되어졌다.

기독교의 주된 무용들은 성 스테판의 축일에서의 부제들의 축제무용, 성 요한의 축일에서 성직자들의 축제 무용, 무죄한 자들의 축일에서 소년합창 단대의 무용, 그리고 할례의 축일에서 부주교보의 축제 무용이 있었다. 바보들의 축제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들 중 마지막에 해당되는 무용이었다. 이 무용은 교회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해학극으로서 하위 성직자들이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날카롭고 재치 있게 풍자한 신년 의식이었다. 바보들의 축제는 12세기말부터 프랑스를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상스 대성당의 기록에 따르면, 이 축제는 전형적으로 노래와 무용, 향연, 그리고 주교들과 교황까지도 풍자한 익살극을 수반했다고 한다.³¹⁾

교회 축제에서 행해지던 춤은 대중적 종교 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발전은 교회의식과 축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전통적인 축하의식을 위한 것이었으며 “원형무용(round-dance)” 또는 “고리무용(ring dance)”³²⁾등이 많이 행하여 졌다.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 공연되어 졌으며

31) 서정자, 「서양 무용예술사」,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1997, p.143

32) 고리무용(ring dance) : 이교도의 풍습이 현저하게 남아있는 춤으로 그리스인은 사람이 죽어 저승으로 갈 때에 천국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원형경기장 안에서 춤을 추었는데, 중세 인들은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사후세계는 창조주를 섬기는 천사들이 둥글게 춤을 추는 곳으로 믿어, 그후 교회의 춤들은 신성한 원형의 고리를 모방하였다. 조미애, 「중세후기 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19

페스티발이나 결혼식 또는 장례식의 의식에서도 행하여졌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춤의 의식을 교회가 규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는데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으며 상황에 따라 행하여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때로는 리듬과 발걸음의 움직임만으로 기쁨을 표현하였으며 이것을 교회가 규정하고 감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교회에서 통제외의 한계를 시험한 부류의 춤으로 “사육제에서의 춤”을 들 수 있는데, 사육제는 사순절의 회개의 계절이 시작하기 직전에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잔치이다. 일부 학자들은 사육제(謝肉祭)의 자취를 고대 로마의 사투르날리아(Saturnalia) 새해 맞이 축제에서 찾거나 아니면 그리스시대에 지상의 풍요를 축하했던 디오니소스제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 축제에서 주인과 노예들은 잠시 역할을 바꾸었고 거리는 무질서로 난무하였다. 사육제의 춤은 열광적이었고 자유분방하였다. 교회당국자들은 7세기부터 사육제 춤을 비난하였다. 세빌리아의 이시도르 대주교(560-636)는 춤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다. “기괴한 형용을 하고 난폭한 모습으로 돌변하였다. 또 다른 자들은 남자얼굴을 여자들처럼 꾸며 여성의 몸짓을 지었다. 그들은 춤에서 손뼉을 치고발을 구르고 뛰어 놀았으며, 더 수치스러웠던 일은 원무에서 남녀가 함께 붙어 춤 춘 사실이었다...” 이렇게 교회 내에서 신성한 예배를 불경스럽게 패러디 하는 것을 포함해 유사한 관습들은 거듭되는 금압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에서 존속하였다.³³⁾

춤은 일반적으로 찬송가나 캐롤 등과 함께 행하여 졌는데 “to carol” 이 “to dance”를 의미한다는 것은 닥 아담스(Doug Adams)의 책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캐롤은 코러스와 함께 행하여졌으며 움직임과 정지의 표시는 춤이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대부분의 코러스 동안, 때로는 솔로댄스가 때로는 집단군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코러스 동안의 가장 일반적인 스텝은 “트리푸디움(tripudium)” 이었는데 이것은 “삼보무(three-step)”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 번 앞으로 향하는 스텝과 한번 뒤로 향하는 스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자는 일반적으로 4/4 또는 2/4박자였으며 이러한 안무는 거리에서 또는 교회근처에서 교회의 표식으로 이용되기도 하였고, 원무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것은 인

33) Jonas, Gerald, 김채현 옮김, 「춤」, 청년사, 2003, p.48

간의 겸손함을 의미하였고 일종의 존경에 대한 행위였다. 이것은 기독교 예배에서 이용될 때까지 한 쪽 무릎을 구부리는 궤배를 위한 기초였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초기 중세시대에는 신부들과 다른 성직자들이 일반 평신도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예배식의 무용에서도 각 개인의 동작들은 점차 교회의 신성한 리듬을 상실해 갔고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게 되었으며 결국 다양한 기독교적 형식에서 무용이 이용되는 것을 규제할 새로운 칙령과 법을 규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³⁴⁾

그러나 중세를 거치면서 초기 교부들의 춤에 대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본능으로 그 행위들은 부분적으로 행하여졌던 것이 사실이며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중세후기 (A.D.1100-1400)

교회가 그 권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용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어졌다. 무용은 이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규제되면서 특정 의식에 사용되어 졌으며 원형 또는 병렬의 형태가 번갈아 가며 움직이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규제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부터 점차적으로 그 움직임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기교적이고 드라마틱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무용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16세기 교회 의식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데, 16세기 세느 지방의 부활절의 의식을 묘사한 것을 보면 “대교주는 성직자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동작을 행하고 들썩 돌아나간다 이들은 교인들 사이를 돌아나가며 교인들은 이에 맞추어 찬송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춤의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성직자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D. 1100년경부터 교회는 신도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는 보다 합창에 가까운 노래, 보기에 멋진 행진, 그리고 합창대 부근에서 공연될 의식 무용을 만들었다.³⁵⁾ 즉 평신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짧은 연극(playlet)을 도입했고,

34) 서정자, 앞의 책, p.146

35) 위의 책, p.146

기독교의 주요한 일화를 전달하는 다른 수단으로서 전례적인 연극(liturgical play)을 만들어 냈다. 배우는 낮은 직급의 성직자였고, 공연은 처음에는 제단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본당 회중석에서 이루어졌다.³⁶⁾ 그것은 성서극(mystery play)의 전조가 되는 것으로서 시트구(tropes)와 함께 성찬예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³⁷⁾

신비극 내지는 기적극(miracle plays)의 효시는 미사 그 자체의 일부인 종교극이었다. 이런 종교극은 12세기초부터 시작되었다. 교회가 일반인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신부들, 수녀들과 소년합창단원들이 이런 종교극을 연기하고 춤을 추었다. 신비극과 기적극들은 이 무렵에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 교회내 제단의 동쪽 끝에서 재현되었지만, 곧 성인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서쪽에 위치한 넓은 복도에서 거행되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각 성당들은 수많은 인파들로 큰 혼잡을 이루었고, 성서에 등장한 각 일화들은 상징적인 종교적 해석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³⁸⁾

특정한 이벤트나 상황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금은 드라마틱한 공연이 행하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종교무용의 등장은 교회의 춤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교회의 독선적인 권위가 종교무용의 발전을 많이 제약하고 있음이 시대적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15세기의 가장 널리 알려진 종교무용으로는 “죽음의 춤(Dance macabre)”³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춤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종교 무용이었다. 이 춤은 중세 시대 죽음에 관한 설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에서는 설교를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강조함으로써 죄인들에게 겁을 주어 회개하도록 했다. 이 춤은 죽음의 필연성에 관한 설교와 함께 공동묘지

36) Sorell, Walter저, 신길수 옮김, 「서양무용사상사」, 예전사, 1999, p.34

37) 박영애, “기독교 무용의 중요성 및 의미”, 발레연구논집 제15집, 2001, p.83

38) 서정자, 앞의 책, p.146

39) 죽음의 춤은 사회적, 종교적 풍자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중세 동안 민주주의 의식의 발아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이 춤은 자신들이 살았던 전체사회, 정치, 종교적 체계 모두에 대한 일반인들의 환멸을 절박하게 표방한 것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과 아울러 죽음에 대해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시사를 위한 시위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말복, 「무용의 이해」, 예전사, 1999, p.69

나 교회 터에서 시작되었다. 한 인물이나 경우에 따라 한 무리가 납골당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등장인물은 죽음의 전통적 의상을 입는다. 그 의상은 해골을 그려놓은 것으로서 몸에 딱 달라붙는 노란색의 옷이다. 사람들은 희생 제물로 받쳐지거나 묘지 주변에서 ‘죽음’을 함께 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죽음은 비록 기괴하지만 파괴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피안으로 보내는 사절로 나타났다.

흑사병(pest)이 유행하던 시기에, 죽음의 춤은 음악적 수반과 행렬의 디자인에서 세트 형식이 발전되었다. 중세의 사회는 계급에 상관없이, 교황으로부터 일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의지와 무관하게 ‘죽음’의 포로가 되었다. 계급에 따라 배열된 그들은 사람들의 행렬의 조직에서는 진보적이었으며 죽음을 탐닉하는 괴기스러운 흥내를 내기도 하였다.

죽음의 춤은 14세기 스페인에서 “죽음의 공동적 춤(La Danza General de la Muerte)”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에서는 전통 춤 외에도, 모든 이를 정복하는 자로서의 죽음을 묘사하는 극적인 장면이 “죽음의 승리(Trionfo della Morte)”라는 이름으로 상연되었다. 16세기 플로렌스에서는, “죽음의 정복(Triumph of Death)”이라는 행렬이 있었다. 그 행렬은, 죽음이 관을 둘러싼 채 수소들이 이끄는 마차 위에 큰 낫을 들고 서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헤르더(Herder)의 교회사전(KirchenLexikon)에서, 바움커(Baumker)는 프랑스의 죽음의 춤 7편을 언급하였는데, 15세기의 춤 1편과 16세기의 춤3편 그리고 17세기의 춤3편으로 그 중 다섯 개는 영국에도 알려져 있다. 묘지 벽이나 납골당 집들, 영안실 예배당들 그리고 유럽 전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죽음의 춤에 관한 그림들이 무수히 그려져 있다. 가장 오래된 그림 중의 하나는 파리 근처에 있는 “순결한 무덤(Cinetiere des innocents, 1425)”이며, 또 한 점의 유명한 그림으로는 피사 묘지에 그려져 있는 “죽음의 승리(Triumph of Death)”이다.

중세시대 무아경의 춤인 “코리잔티스(Chorizantes)”는 독일에서 남녀 모두를 포함해서 수천 명의 구성원이 참여했고, 그들은 지칠 때까지 길거리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춤을 추었다. 그들은 환상 속에 빠져 타인의 시선은 신경도 안 썼으며 미친 듯이 공중으로 뛰어오르기도 했다.⁴⁰⁾ 이와 유사한 무아경의 춤이 1419년 스타스부르그에서 생겼다. 이곳에선 “성 비투스(st. vitus)”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었고 그는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박해 당한 귀신들린 황제의 아들을 치료했다. 그 후 성 비투스는 신경 질환의 수호신이 되었고 그의 춤(st. vitus dance)⁴¹⁾은 병을 치료할 수 있

40)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김명숙 옮김, 「Dance as Religious Studies : 종교와 무용」, 당그래, 2000, p.41

는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되어졌다.

이러한 춤과 함께 보여지는 강박관념은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표현은 일부의 교회로부터 악마의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라 금지되기도 하였다. 중세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영향 아래 모든 예술활동이 교권과 연결되어 획일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기독교 사상에 예속되어 무용이 죄악시되는 경향으로 커다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중세무용은 중세 이후의 무용발전에 조용한 교량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자 이러한 죽음에 대한 춤은 인간들의 공포를 완화하고 죽은 자를 위로하는 행위로 널리 행하여 졌다. 1450년대까지 유럽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의 공포는 인간들의 춤에 대한 본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영향으로 춤은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되었으며 존 마틴은 사람들이 춤을 통하여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정식적 스트레스를 완화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춤에 대한 긍정적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춤의 긍정적 역할을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면서 종교무용은 많은 부분에서 규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춤의 긍정적 역할로 사람들 사이로 점점 가까워지고 스며드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⁴²⁾

(4) 르네상스(A.D.1400 - 1700)

정교하고 극적인 표현들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우화적 가면극은 드라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상징적 무용으로 이용되었다. 르네상스시대에 종교적 무용이 계속 번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술에 악영향을 끼치는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1455년부터 서적들이 출판되기 시작했으며 책자, 팜플렛, 그리고 책의 인쇄는 지성인들에게 자극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는 반면 육체는 종교의 성장과정 속에서 하찮게 여겨질 것이라는 점이다.⁴³⁾

41) st. vitus dance (세인트 비튜댄스) : 일명 무도병이라 말하며 이 춤은 주술적인 춤에서 생겨나서 유행된 춤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중세의 무용과 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연구논집 14, 1986, p.341

42) Lucinda Coleman , 「Worship God in Dance」 ,<http://www.pastornet.net.au/renewal/journal6>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그 극단적인 수단으로서 대부분의 시각예술을 없애고 오직 인쇄, 설교 그리고 음악 예술만을 남기려고 하였다. 급기야 장례행렬을 제외한 모든 무용과 행렬들을 없애버리기도 했다.

한편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트렌트 공의회(The Council of Trent)는 문학적이고 극적인 삽입들을 지양하고 중세의 예배 전통으로 회귀하자고 결의한다(1566).⁴⁴⁾

또한 공연하기에 알맞게 지어진 르네상스의 궁전 뜰에서는 반종교적인 무용이 자주 상연되었다. 이 시기의 독창적인 무용은 부활절에 오세르, 라임, 루앵, 상스, 나본느, 그리고 프랑스 전역의 성직자들에 의해 상연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는 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대 격동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455년부터 책의 출판과 함께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1517-1529년 동안의 청교도 혁명은 교회역사에 거대한 변화를 주었으며 이는 교회에서의 무용의 가치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되었다.

무용에 있어 큰 변화는 당시의 무용이 극적인 모럴(moral)발레가 인기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극적이고 스펙타클한 춤의 발달은 교회 안에서 의식적 무용의 이용이 더욱 사라지게 하는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 있어 종교무용은 교회 사이에 더욱 규제대상이 되었으나 당시 르네상스시대의 사회분위기로 인한 춤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까지 바꾸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청교도 혁명의 리더들은 전통교회의 의식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상의 이용이나 순례 등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금욕을 설교하였으며 세상을 영혼과 육체의 싸움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은 영혼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 하였고 신체를 찬미하는 것을 에로티시즘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급속히 퍼져나갔으며 이로 인해 무용에 대한 비평적인 입장은 교회 내에서 일반적 현상으로 굳어져 가게 되었다.

그들은 무용이 이교도들의 것이며 우상숭배의 전유물이라 여겼으며 전혀 이득 되는 것이 없는 존재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의 옹호자들로는 Lucian, Caligula, Herod 등이 있다. 그러나 초기의 청교도 지

43)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앞의 책, p.44

44) 위의 책, p.45

45) Lucinda Coleman , 「Worship God in Dance」 , <http://www.pastornet.net.au/renewal/journal6>

도자들까지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마틴 루터는 아이들을 위한 춤과 노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더욱이, 영국교회의 리더인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은 기독교 성서의 머리말에 기쁨의 노래와 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으며,⁴⁶⁾ 새로운 형식의 교회 무용과 찬양이라는 글을 통하여 기쁨이나 즐거움을 전하는 방식으로서의 춤과 무용을 소개하여 점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져 가는 교회무용을 긍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비슷하게 카톨릭 교회에서도 트랜트(Trent)의회의 모임에서 종교 무용에 대한 금지를 완화할 것을 논하였으며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움직임의 공연 없이 예배하는 것을 고집하여 왔다. 이러한 교회의 압력은 종교무용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서 종교무용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일부의 제한된 상황이나 장소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무용의 쇠퇴로 초기교회의 의식에 있었던 무용의 형태는 일부 결혼예식이나 장례예식에서 극한적으로 자취를 찾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의 미사에서만 그 형태를 남기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의 신구 양대 교회는 교회무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집하였는데, 이것은 무용은 사회적인 활동이지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는 것에 그 사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찬양을 위한 무용은 성서적인 것으로 특히 신약에서의 무용은 매우 즐겁고 경건한 찬양의 행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히브리 전통에 있어서 무용은 찬양과 기도의 중간적인 기능을 했으며, 즐거움과 경건함의 묘사를 위해, 또한 신과 인간의 연계성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용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초기 교회의 믿음에 스며들어 있다. 중세시대 동안 무용을 통한 찬양의 금지가 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찬양과 기도의 중간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무용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초기 교회의 믿음에 스며들어 있다. 중세시대 동안 무용을 통한 찬양의 금지가 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찬양과 기도의 중간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교회에서의 무용의 위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크게 발전된 형태를

46)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앞의 책, p.44

가지고 있었으며 초기 교회에서도 찬양과 축하의 형태로 그 형태를 보존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 동안 많은 사회적 영향으로 교회 무용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의 가치와 활용은 쇠퇴하게 되었으나 그 명맥은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혁명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의 무용은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주 이례적 상황이 아닌 때를 제외하고 그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점진적으로 20세기 교회의 변화로 인하여 예배무용은 교회 안에서 다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찬양에 있어 다양한 표현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배 안의 무용은 일반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찬양에 있어 다양한 표현과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

3. 기독교 예배무용의 유형

예배무용(Liturgical Dance)은 신체의 동작을 수반하며, 한 개인이나 그룹을 지어 교회나 야외에서 실행된다. 의식 활동으로서 예배는 항상 다양한 형태의 동작들을 이용하여 왔다. 예배무용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회중들의 기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공동체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중지시키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무용은 공동체를 예배의 신비함으로 이끌어 내고, 성서의 새로운 영역들을 나타내면서 교회의 예배를 제공한다. 따라서 예배무용은 무용가와 성직자들이 무용의 언어를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예배 의식과 무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배무용은 예배의식, 또는 성찬식의 한 부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용형태들은 예배 의식이 진행된 장소와 그 의식의 기능에 따라서, 또는 그 무용을 위해 이용된 재료들, 즉 성서 구절이나 음악을 분석한 후 결정될 수 있다. 가령, 성찬식 때에 사람들이 포도주와 밀빵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경우에는 양손을 가슴에 교차하거나, 또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성서 구절을 암송하면서 양손을 들어올리는 경우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성서에서 춤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적어도 춤과 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은 거의 없다. 현대 성서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성서는 “언어적 사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성서 구절의 형식은 이론보다는 사건에, 철학보다는 예배에, 그리고 논술보다는 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는 교회예배 및 교회교육에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과거의 성서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종류의 구절들은 춤의 형태로 내용을 해석하도록 장려한다.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예배무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서자료를 찾음으로 예배무용가는 교회와 예배에서 사용하는 구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춤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예배무용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다음의 5가지 형태인 행진무용(Procession dance), 선언무용(Proclamation dance), 기도무용(Prayer dance), 명상무용(Meditation dance), 축하무용(Celebration dance)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⁷⁾

47) Sola, Carla De, 「The Spirit Moves」 Austin ;The Sharing Co., 1977, p.151 / 조승미, 「성서를 통한 기독교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

(1) 행진무용(Procession dance)

행진무용(行進舞踊)은 종교무용에서 가장 순수한 형식으로서 한 그룹의 동작과 생활의 리듬에 대한 인식을 행진을 하면서 고정된 형태를 갖게 된다. 예배에서 행진과 같은 동작을 포함하는 장소에는 입장 시의 행진, 성가찬송시의 행진, 성찬 시의 행진,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에 하는 행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무용은 주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달성하는 기능적인 동작이다. 그리고 무용이 있건 없건 무용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사무엘하6장14절이나 역대상 15장 29절을 보면 행진은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일상적인 걸음과는 달리 여호와의 현존을 믿는 신앙에서 내딛는 스텝으로 신앙의 표현 동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행진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닥 아담스(Doug Adams)는 “행렬은 단순한 원대형과는 달리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최종 지점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대형으로서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⁴⁸⁾ 이러한 행렬과 행진은 성서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두 중요한 상징성을 띠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선언무용(Proclamation dance)

선언무용(宣言舞踊)은 말을 사용하는 의식에서 이용되는데, 특히 성서의 구절을 선포할 때 중요하다. 이 때에 말은 십계명(十誡命)이 공동체를 위한 기초로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동안에 구원(救援)의 신앙을 확신시킨다. 그래서 무용드라마나 마임무용은 실제 성서에 대한 선언일 수 있다. 동작은 그 구술된 본문을 나타낸다. 이런 방법으로, 글을 읽는 사람과 무용수는 공동으로 그 메시지를 선언한다. 성서는 여러 극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드라마틱한 재현이 가능하다. 특히 성서의 내용들을 극화(劇化)하는 것은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이다.⁴⁹⁾ 선언으로서 동작은 새로운 방법으로

원 박사학위논문, 1996, p.73 재인용.

48) Jones, Mary, 박영애 편역, 「크리스천 댄스」, 도서출판 바실, 2000, p.52

49) Kirk, Martin Ann.(1983) 「Dancing with the Creation」 New York:

말을 고양하고 해석한다. 특히 일요일이나 축제 때에, 선언무용은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그 선언을 고양시키는 영감적 일 수 있으며,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복음 주의적 일 수 있으며, 말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예언(豫言)적일 수 있다.

(3) 기도무용(Prayer dance)

기도 무용(祈禱舞踊)은 공동체 기도를 표현하는 동작을 갖고 있다. 외침과 탄성의 두 종류로 구성하며, 기도는 신에게 직접 또는 간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해지는 것이다.

(4) 명상무용(Meditation dance)

명상무용(冥想舞踊)은 본질상 반성적(反省的)이며, 성서를 읽은 후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특히 시편⁵⁰⁾에 나타난 무용을 이용하는 것을 예배에서의 명상적인 반응이다.⁵¹⁾ 시편의 본문은 보통 시적이기 때문에 시편의 무용은 친교 후의 반성적인 요소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 두 경우에서, 시편의 무용은 독무나 군무에 따라 공동의 제스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명상무용의 이용은 설교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무용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고취시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 때에 무용은 공동체를 일상 생활에 대한 반성을 하도록 이끈다. 명상무용은 거의 대부분 친교 후 조용한 시간에 행해진다. 이런 반성적인 시간은 그 의식의 목적을

Resource Press, p.145 / 조승미, 「성서를 통한 기독교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74 재인용

50) 시편 전체는 원래 예배자 집단에 의해 노래 불려지고 춤추어지도록 의도된 것이라도 학자들은 주장한다. 원문을 세밀히 검토하면 찬송의 춤에는 강충 뛰기, 선회(旋回), 발구르기와 같은 스텝을 동반한 행렬과 원무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시사된다. Jonas, Gerald, 김채현 옮김, 「춤」, 청년사, 2003, p.38

51) Macleod, Marian.(1985) 「Dancing Through Pentecost」 Austin ;The Sharing Co., p.183 / 조승미, 「성서를 통한 기독교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74 재인용

더욱 강화시키고 그 의미를 통찰하도록 돕는다.

(5) 축하무용(Celebration dance)

성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무용의 장면으로 출애굽기 15장 20-21절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춤이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 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출애굽기15:20-21)

성서에서 보여지는 축하무용은 주로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여자들에게 의해서 추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며 승리하여 돌아오는 영웅들에 대한 찬사로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이야기한다. 버더(Burder)의 책 「동양의 풍습들(Orient Customs)」에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하는 구절에 대해, 미리암이 춤을 리드하고 다른 여인들이 미리암의 스텝을 모방하여 즉흥적인 형태로 춤을 추었다고 말하고 있다.⁵²⁾ 또한 종교무용 역사가인 루이스 백맨(E. Louis Backman)은 “미리암에 의해 추어진 춤은 호핑댄스(Hoping Dance)의 일종이다”라고 한다.⁵³⁾ 즉, 유대민족 대제사장인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소고의 리드미컬한 가락에 맞추어 무용을 리드했고, 그 뒤의 여인들이 춤을 추며 모두가 흥에 겨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에 대하여 여호와께 진실된 찬양으로 춤과 노래를 부르며 축하하였던 것이다. 또 다른 축하무용으로 사무엘상 18장 6절을 들 수 있겠다.

52) J. B. Gross(1977), 「The Parson on Dancing」, New York: Dance Horizons p.87 / 박황숙, 「기독교 전통과 무용」, 이화여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7, p.21 재인용

53) W.O.E.Oesterley(1923), 「The Sacred D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6 / 박황숙, 「기독교 전통과 무용」, 이화여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7, p.23 재인용

우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인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사무엘상18:6)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전보를 전해들은 여인들이 성서에서 나와 소고와 경쇠를 들고서 노래하고 춤추며 승리의 귀향을 맞이하고 그러한 공적에 대하여 축하 행사를 벌렸다. 이처럼 축하무용은 승리에 대한 축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그 정서를 공유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춤은 진정한 종교무용의 신성한 일부분이었던 것이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사사기11:34)

위의 사사기11장34절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 앞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마침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입다의 딸이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추며 승리한 아버지를 반기게 된다.

축하무용(祝賀舞踊)은 비록 의식의 구조와 형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배 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무용들은 전체의 회중들이 단순한 제스처나 실제의 동작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배무용은 최근에 들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고대의 의식 무용에서와 같이 인간의 한 의식으로서 제스처와 일상적인 동작까지 수반하기도 한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무용으로 신명기16:13-16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 거룩한 날로써 절기를 정하고 그 날에 모여 축제 행사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성경구절에서의 “절기” 또는 “축제(Feast)”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Chagag”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춤”을 의미한다. 출애굽기23: 14-16, 34:22 에서 “Feast”는 “원(circle)” 또는 “행렬(procession)”의 의미를 지니며 사람

들이 춤추는 것과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절기로 항상 제단까지 이르는 행렬이나 제단주위를 도는 “윤무”가 있었다. 히브리어로 “hag(chag)”는 종교무용인 축제 “행렬무”에 해당하는 어근이다. 그 축제들이 “hag”라고 공동적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각각의 축제에 원래 축제의 본질적인 것을 연역하는, 즉 “성소주변에서 수행되어졌던 성스러운 춤”이 적용되었음을 암시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 예배무용의 종류와 성격은 다양하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춤에 대한 성서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예배무용을 교회생활에 보다 자연스럽게 흡수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기독교 예배무용의 영적인 기능

성서는 히브리(Hebrew) 사람들의 내면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을 담은 여러 가지 춤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춤은 절대적인 구성요소로서 일상생활에서나 축제 등에서 행하여졌고, 신과 인간의 연계(連繫)자였으며, 그로 인해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신인 여호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배 안에서 찬양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춤을 추었고, 축제의 목적을 위하여도 교회 안에서 춤을 추었으며, 그 춤은 기도의 한 형태로서 환희의 표현이기도 했다.

춤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
할 지어다(시편149:3)

위의 성경구절과 같이 성경은 춤과 찬양으로 즉, 소고와 수금으로 신을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성경에서 나타내는 “춤”의 용어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용어가 있다. 집단무용을 나타내는 이러한 용어는 그리스 성서(Septuagunt)에서 “코러스(choros)”로, 라틴 불가타성서(Vulgate)에서 “코레아(chorea)”로 번역되어 있으며, 이러한 춤은 개인보다는 집단에 의해서 추어졌고,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인 개인의 은혜 또는 집단의 조화에 대한 기준을 예배무용으로 설정하였다.⁵⁴⁾ 이렇듯 성서에서의 춤은 신성한 종교의식에 행하여지는 종교무용으로 고대 유대인의 공적예배에서 꽤 활하면서도 기운찬 일부분을 차지했으며, 성경의 원어의 용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무용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다른 형태와 방법들의 무용이 이루어졌음을 볼 때, 성경에서의 무용의 종류와 형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발전을 이루어 활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성서에는 예언자가 말하고 이방인이 나타나며, 기적으로 장님이 보게되고, 절뚝발이가 걸게 되고, 문둥이가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춤과 치유는 오랫동안 연관지어졌으며, 교회에서 춤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치유의 힘에 주목했고 각종 춤을 고안

54)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김명숙 옮김, 「Dance as Religious Studies : 종교와 무용」, 당그래, 2000, p.57

해 내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역시 춤의 사용은 치료학으로도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있다.

그렇다면 예배무용의 영적인 기능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영혼⁵⁵⁾의 치유와 회복으로서의 기능

성경에는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여호와와 그의 제사장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베에봇⁵⁶⁾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그의 제사를 배어 오니라 여호와와 그의 제사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사무엘하6:14-16)

위의 사무엘하6장의 구절은 '법궤 앞에서의 다윗의 춤'으로 히브리인들에

55) 영혼 : 성서는 인간을 유기적 통일체로 본다. 흔히 “영혼”으로 번역되는 “nephesh”라는 단어는 “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서 살아 있는 존재인 “생명의 숨결”이 나오는 것이다.(창세기2:7, 시편103:1). 때로 이 단어는 인칭대명사(자기, 자기자신)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것은 육체적이지만 또한 인간의 연약함에 주목할 경우 basar(육체)라고 불리기도 한다. Fouillous, Danielle외, 김애련 옮김, 「성서문화사전」, 솔 출판사, 2001, p.373

56) 베 에봇(ephod) : 유대 제사장의 제의(祭衣). 율법에서는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으로 규정하지 않고, 입는 사람의 제사장 신분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위한 이 제사와 관련된 행사를 거행하며 그 옷을 다윗이 입었던 것이다. 즉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의 머리가면서 일반적 제사장의 직임을 행한 것을 말해 준다. 조규청, 「기독교 문화 속에 내재된 무용의 제 양상과 그 해석 - 성서에 나타난 무용을 중심으로」, 숙명여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8, p.32

게 하나님의 임재, 인도, 보호,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시편30편11절의 구절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심을 다윗이 감사함으로 읊은 것으로 이 춤 역시 ‘다윗이 슬픔에 잠긴 영혼의 우울한 상태에서 위안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쾌활하고 혼쾌한 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놀랄만한 심리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구원과 회복 그리고 치유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성경은 신앙 생활 속에서 몸으로 형상화된 일종의 존재 방식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으로 형상화되는 존재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거니실 때에, 사람들을 만져서 치료하셨으며, 아이들을 불러모아 팔에 안으셨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으며,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 그분의 몸을 만져 주심과 치유하심, 씻겨 주심과 안아주심, 무릎 꿇으심과 떡을 떼시는 행위 가운데서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그분의 기도를 자신이 소중한 여긴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리신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여 행동으로 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며, 또한 많은 말을 필요로 하는 것도 시각적인 그림으로 사용할 때 보다 빨리 내용 전달이 된다고 한다. 직접 움직임이나 워크샷, 공동체 무용, 또는 집회에 참석해 그 과정 속에서 치유와 일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깨닫게 되며, 움직임을 통해 깊은 치유와 통찰력과 해방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⁵⁷⁾

“몸과 영혼”이라는 낱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며, 동시에 철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다. 철학적 해석으로 영혼을 이해한다면, 영혼은 현실과의 전체적 상관관계에서 해석해야 할 단어이고, 세계, 혼, 이념, 현상, 신등의 용어와 꼭 같은 언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혼이란 말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본체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인간의 행동과 욕망이 관련된 넓은 상관 관계의 장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⁵⁸⁾

57) Jones, Mary , 박영애 편역, 「크리스천 댄스」, 도서출판 바실, 2000, p.34

58) 조만진, “영혼과 몸의 문제”, 동의대학교 제28호 인문사회과학집, 1998,

자아, 영혼, 인격과 같은 용어는 인간의 존재와 본질을 논의할 때 중요한 용어가 되었다. 특히 영혼은 본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영혼이란 말은 사람됨의 비밀을 표현하고, 동시에 그 비밀을 합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몸이라는 단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말은 항상 엄격하게 객관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영혼이란 말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변천에 따라 구체적인 인간의 현상을 다시 새롭게 규정할 때 쓰인 단어이다. 여러 사상가들이 몸에 대해서도 본체라고 말할 때, 인간행동의 외부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다. 어떤 경우에도 몸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몸을 검증 가능한 객관적 현상에 관한 말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⁵⁹⁾ 몸과 영혼의 연관성은 신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는 육체적인 가운데 생생히 나타난다. 절하기, 서기, 무릎꿇기, 손들기, 또는 땅에 엎드리기 같은 동작들이 기도할 때 함께 수반되었으며, 특히 구약성경은 몸을 신성한 기도의 장소로 잘 나타내준다. 창자가 고통가운데 괴로워하며(예레미야4:10), 복보가 애통하고(시편31:9), 간이 뒤틀리며(예레미야애가), 뼈들이 흔들리고(예레미야23:9), 영혼이 갈급해 하며(시편63:1), 육체가 노래한다(시편84:2).

사람이 된다는 것의 깊은 의미는 몸으로 나타나는 실체를 통해 나타난다. 몸은 사람들이 자기 내부에서 소리치는 대담한 선언과 미묘한 감정들에 귀 기울이는 장소가 된다. 몸에 주의를 기울임을 통해서 우리는 몸 내부의 여러 가지 아우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즐거움과 기쁨,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일상의 삶의 리듬을 전해주는 소리들, 몸이 전해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좀더 깊이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12:12)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로마서 12:4-5)

p.447

59) 조만진, 앞의 책, p.448

위의 성경구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측면도 서로 지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껏 너무나 영을 몸과 분리 시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여정에서 육체를 가진 몸을 진정한 지체로 여기려 하지 않는다. 몸의 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감정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속에 거하시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곳이 “하나님과의 교제” 라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만나게 될 것이다.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은 “치유란 마귀가 인도한 고립 상태에서 내 고난을 끄집어내 내 모든 고난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온 인류와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겪는 것임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작은 삶이 뭔가 더 큰 것에 가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⁶⁰⁾ 또는 “애통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일깨워주며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⁶¹⁾ 폴 툴리히(Paul Tillich) 또한 “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치유”라고 말한다.⁶²⁾ 그렇다면 이러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예배무용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시편30:11)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며, 슬픔과 고통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치유란 성령께 나를 춤으로 부르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며 고통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⁶³⁾

60) Nouwen, Henri J.M., 윤종석 옮김, 「춤추시는 하나님」, 두란노, 2001, p.15

61) 위의 책, p.26

62) 폴 툴리히는 교회와 문화는 서로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둘을 포함하면서 초월한다고 함. 그는 문화와 종교의 관계에서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며, 종교는 문화의 실체라고 말한다. P.Tillich, 김경수 옮김, 「Theology of Culture : 문화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p.52, p.61

63) 위의 책, p.32

살아가면서 인간은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상처를 받는다. 가족, 친구,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우리는 “거룩한 상처(holy wound)”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구함으로 가는 상처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상처는 종종 두 가지 차원인 감정적인 차원과 신체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인생의 여러 경험과 유형, 관점이나 행동 양식은 깊은 내면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치유는 우리 삶 속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영혼의 친구, 치료사들, 고독, 기도, 일기장, 후원자들, 혼자만의 시간 등. 치유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일어나거나 춤추기도 하신다. 치유의 여정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우리의 몸인 것이다.

치료나 치유 과정에 몸을 사용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몸에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받기도 한다.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이상 식욕 항진증, 술이나 약물 중독 같은 것들은 모두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험은 사람들을 자신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결국 감정의 모든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왜곡시키거나 말살시키기도 한다.

감정적, 영적인 성장에서 몸이 자기 목소리를 낼 때 통상적으로 치유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첫째는 몸과 내면 생활 사이의 분리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분리와 분열 즉 이원론은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하든 상관없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손상을 입힌다. 예를 들어 필 포터(Phil Porter)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와 신학들은 몸과 영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상자에 담아 억지로 분리시켜 놓았다 한 선반 위에 올려놓되 양쪽 끝에 보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도시의 창고 속에 따로 두듯이 그렇게 분리시켜 놓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상자를 회수해서 상자를 연 다음, 속에 있는 내용물을 밖에도 꺼내 놓고 신나게 뒤흔들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도록 섞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 생활에 몸을 포함시키면서 몸과 영을 한데 묶는 이런 행위가 바로 성육신적인 치유 행위이며 이를 통해 몸과 영 사이의 오랜 분리는 고쳐지기 시작한다.⁶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깊이 있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신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의 뺏속 깊은 곳을 만지시도록 허락하라고 요청하신다. 이

64) Snowber, Celeste, 허성식 옮김, 「몸으로 드리는 기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p.155

런 방식으로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의 존재 전체에 관심이 있으시며 우리를 전인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속하시며 언젠가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무용은 간힌 정서를 풀어주고 억압된 우리 심령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메시지가 전달되는 새로운 복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를 그 자리에서 즉시 표현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언어이며 인간 영혼의 접촉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몸은 영혼에 영향을 주며, 영혼은 몸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우리는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몸을 존중해 주고 몸을 하나님이 들어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성서는 처음과 끝 부분에서 여성들의 행위를 묘사할 만큼 여성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성서의 많은 여성들 중에 실제로 춤을 추었던 인물은 미리암과 살로메로 이 둘은 처녀와 요부를 양분시킴으로서 자연히 후에 여성과 여성의 몸을 죄악시하는 이미지로 굳혀지게 하는데 기여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몸을 남성의 몸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보아 왔고, 여성의 몸은 수세기 동안 육체, 육욕, 정욕, 그리고 “남성의 악한 욕망”을 상징해 왔다. 특히 사람들은 여성의 몸은 영혼을 끌어내리며, 진리와 내면적 실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둡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교회는 육적인 것, 육신 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여성과 연관 지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책들에 실린 것들 중 몇 가지를 인용해 본다면 이렇다. 2세기에 살았던 터툴리안은 여성을 “마귀의 출구”라고 칭했고, 3세기 사람인 오리겐은 여성은 육신 적이며 신성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가르쳤다. 4세기에 어거스틴은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거부했다. 13세기에는 아퀴나스가 “여성이란 뭔가 부적합한 자료를 사용해서 잘못된 상태로 세상에 나온 남자”라고 선포했다. 이렇게 지성, 이성, 진리 같은 고차원적인 미덕은 곧바로 남성과 연결되었고, 이성과 정욕, 지성과 몸, 감정과 진리는 계속해서 대결 도구로 배치되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원론에 의해 권장된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의 유산은 이와 맞먹는 또 하나의 파괴적인 이원론을 조장했다. 문화, 신학, 철학, 성례전 할 것 없이 분야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이분법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장소, 지혜를 담는 곳 혹은 거룩한 분과 교체하는 곳으로 볼 수 없게 되었

다. 이것은 또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성을 단지 성행위로만 보는 지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듯 여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유가 너무나 가부장적이며 남성적인 것들로 가득한 전통적인 언어를 초월할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에 있어서의 “진정한 영성의 재 탄생”에 큰 기여를 한 Maria Harris는 “영혼의 춤”⁶⁵⁾으로, 일곱 스텝을 통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영적 삶을 자각하여 계발에 필요한 방법과, 그 방향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영혼의 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여성이 자신을 선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풍부한 영적인 삶을 살 가치를 자각시키고 깨어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여성의 상상력 회복을 위한 모델로서 창조적 표현으로써 동작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동작은 마음과 정신세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성경의 해석 그리고 무용의 형식과 주제는 모두 여성 위에 지배하는 남성을 지속시켰다. 기독교 문학과 설교 그리고 종교교육은 여성들과 그들의 활동을 소수의 형태로 축소시키고 제한 시켜 묘사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도움 받거나 구원을 받고, 여성 예언자는 눈에 띄는 예외로 언급되어지기도 했다. 여성들은 대개 말과 행동이 가부장적 역사가들에 의해 억압되어져 왔다.⁶⁶⁾

65) Maria Harris의 영혼의 춤 : 몸짓과 움직임은 관념과 일치하고, 춤은 육체로써 영혼의 반영을 피하며, 춤은 지성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동작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무용수들의 움직임처럼 여성의 영성은 춤으로서 일련의 춤의 스텝을 가지며 영혼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다음의 일곱가지 스텝의 모형(각성awakening, 발견discovering, 창조하기creating, 머무름dwelling, 양분주기nourishing, 전통화하기traditioning, 변형transforming)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여성이 갖는 여러 가지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전명주, 「Maria Harris 영성교육론의 한국적 적용」, 이화여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p.25/ 천정자, 「Maria Harris의 영성교육론 : 종교적 상상력과 여성의 영성교육」, 이화여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4, p.66

66) 성서에서의 성구분 :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지역들조차도 아주 공통된 것이 “남존여비”가 뿌리 깊은 사회라는 것과, 그것이 전통이자 관습이며 도덕인 시절에 이 글이 씌여 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게되면 남녀차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진리인 보편적인

여성의 몸을 존중하는 탐구들이 문학, 영화, 미술, 시, 무용, 연극이라는 예술 형태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진리가 우리의 전인격, 즉 몸으로 된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몸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 몸은 새로운 존재 양식, 곧 새로운 관점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존재 양식은 설령 몸이 우리가 좋아하는 크기나 모양 혹은 분위기를 내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 해도, 몸을 동무 삼아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다.

우리의 몸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고 이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창조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예배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우리 몸이 기적이 되도록 성육신화 할 수 있다. 즉, 예배무용은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하던 태도의 잔재를 치유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배무용이 주는 유익 중 하나는 그것이 말로 하는 언어가 지니는 전형적인 함정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언어라는 점이다. 몸을 기도의 언어로 활용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상상하거나 말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많은 고정된 방법들이 깨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⁶⁷⁾ 무용수의 손과 발 그리고 팔과 다리가 한데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온전함에 이르는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조리 프록터 스미스(Marjorie procter-Smith)는 여성적인 예배 의식에 관한 책 「여성의 예배의식」(In Her Own Rite)에서 해방의 언어(emancipatory language)를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녀는 어떻게 해방의 언어가 하나님이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관여하신다고 가정하고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자신을 동일시하는지를 상술한다. 이런 종류의 언어는 여성들의 체험을 가

것과, 일부의 때와 장소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야 한다.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남자, 여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견해는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는 것이다. 반면 여자를 형편없이 만드는 고린도전서의 구절들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적인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강원용목사 “성서와 성차별” 강의에서 발췌 <http://www.kdch-urch.or.kr/study/kang10.php>

67) Snowber, Celeste, 허성식 옮김, 「몸으로 드리는 기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p.167

시화 시켜 주며 여성들의 삶의 육체적 실체를 인식한다. 우리는 여성들의 기억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교회가 여성의 몸과 기능에 대해서 으레 두려워하고 혐오해 온 탓에 우리의 언어,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언어는 여성의 육체적인 실체를 무색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낭만적인 것으로 만드는 둘 중 하나였다. 교회 내에서도 해방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은 실체에 대한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배 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남성에게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방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언어를 엿볼 수 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 아뢰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지금은 창조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 즉 마음과 몸의 언어를 되찾아야 하는 시기다. 이것은 몇몇 사람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서는 안되며 신앙공동체 전체가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용수의 손과 발 그리고 팔과 다리가 한데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온전함에 이르는 치유와 회복의 언어가 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 예배무용은 비단 크리스천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실족한 현대인에게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자유를 향한 과정으로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이어주는 훌륭한 매개로 사용될 것이다.

2. 기도와 응답으로서의 기능

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교적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었다. 그들은 성서에서 제의적 춤을 추었고(시편87:7, 149:3, 150:4), 계약궤⁶⁸⁾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올 때 다윗과 그의 온 가문은 춤을 추면서 이를 뒤따랐다(사무엘하6, 열왕기상13:8). 춤은 포도 따기 축제(판관기 21:19)나 승리를 기념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었다. 축제나 향연에서 춤은 으레 수반되었다. 탕아가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은 춤을 추고 살진소를 잡았으며(루가의 복음서 15:25), 헤로데 대왕이 자기 생일을 축하할 때도 살로메가 그 앞에서 춤을 추었다(말라기6:22).⁶⁹⁾

구약성경을 보면 기뻐함(rejoicing)이라고 나오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기쁨으로 찬미한 것”이란 뜻으로, 이 말은 송축하다, 춤추다와 같은 의미이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춤이 기쁨과 연결되어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기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 몸과 마음, 몸과 영이 어우러져 모든 영광과 모든 약점을 몸을 통해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무용사가인 쿠르트 작스(Curt Sachs)는 “춤이 없는 민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춤은 대부분의 문화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어떤 경우는 다른 요소들보다 더욱 필수적이다. 또한 구약성경에는 신학이 “찬미의 시(doxology)”형태로 나타난다. 그것도 몸으로 표현되는 찬미의 형태이다.

오늘날 교회는 경외심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따르지만, 히브리 전통은 몸으로 표현하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좀더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해 준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일 뿐 아니라 두 손을 앞으로 내밀거나 위로 올리거나 높이 쳐들었다. 손을 치켜

68) 계약궤 : 율법판을 담았던 일종의 상자(출애굽기25:10-22). 나무막대에 없어서 숫양 가죽을 씌워놓고 거룩한 장막으로 옮겨졌다. 계약궤를 둔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계약궤는 백성들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시적 표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계약궤는 거룩한 것이어서 정복한 도시 안으로 옮겨놓았고, 솔로몬은 이것을 안치하기 위해 성전을 지어 바쳤다. 출애굽기가 묘사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계약궤의 모습은 케루빔의 날개는 금으로 도금되었다. 계약궤는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사라졌다. Fouillous, Danielle외, 김애련 옮김, 「성서문화사전」, 솔 출판사, 2001, pp.61-62

69) 위의 책, p.514

드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열어 올리는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몸짓으로 하는 것이든,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완전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도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교부들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를 본다면 성 어거스틴은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라고 정의했고, 성 그레고리오는 기도에 관해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성 요한 다마스체노는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나의 전체로 그 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나의 전존재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역사에 동참하신다. 그러기에 기도는 은총이며 축복이요 감격이다. 동시에 기도는 이웃이나 공동체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지는 무거운 짐이요 고통이다.⁷⁰⁾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전해 듣는 것이다.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인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춤은 예배하는 마음의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었다.⁷¹⁾ 히브리인들의 예배는 머리로만 드리는 것이 아닌 그들의 온몸 마디마디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춤은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의 동작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특징으로 삼고 있었다.

춤의 특징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에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민족들이 춤에 대해 접근한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주변 문화에서는 춤을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종종 활용했다. 주변 문화에서 춤은 때로 신들을 달래거나 깨우는 수단이었고, 또 곡물이 잘 자라도록 돕거나 신을 흥내내서 신과 일체가 되도록 돕는 수단이었다.

성경에 나타난 춤은 감사의 응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예로 하나님이

70) 김의식, 「현대교회와 영성목회」,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p.330

71) 위의 책, p.84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을 때 여인들을 이끌고 탬버린과 춤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송축하는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주신 것이다. 즉 이에 대한 응답으로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적인 의식, 탄원, 자백, 찬양, 예배, 축제와 애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다윗이 춤을 추며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bodily soul)”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제물이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경외심과 경이로움, 기쁨과 놀라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배운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이란 “육체성(physicality)”을 가진 “영적 존재(spirituality)”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임재 사실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접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임재-전달자 수단(presence-carriers)로서는 여러 형태들이 사용되며, 이런 수단에는 성례전이 가장 상위에 위치한다.⁷²⁾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응답해야 한다. 온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배에 있어서 응답하는 우리의 표현은 다양하다. 예로 기도와 헌금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Symbol)들이고, 찬양(Praise)과 움직임은 들 수 있다.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춤을 추는 것 또한 훌륭한 찬양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근원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다.⁷³⁾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시편87:7).

예배에 있어서 찬양과 움직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신앙을 고무

72) 김충환, “Worship, Praise and Worship dance(예배, 찬양, 그리고 예배 무용)”, 신학이해 21집, 2001, p.195

73) Joan Caldwell, “Dance and Worship Page” in :<http://www.geocities.com/Heartland/Pointe/9589/dancewor.html>

시키며 성도들의 경건 훈련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하겠다. 예배하는 자들은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주관자가 되고 예배의 시작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되어야 하겠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인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6:19-20).

위의 성경구절에서와 같이 인간의 몸은 예배의 장소가 되므로 우리는 우리 몸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경청하는 거룩한 장소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따라서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고전 6:19)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달아(고전 6:15) 몸 자체를 통해 하나님께 구속을 입게 됨을 상기해야 할 것이고(롬 8:23, 빌 3:2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하나임을 깨달아야 한다.⁷⁴⁾

몸은 우리의 눈길을 요구하며, 우리의 눈길을 붙잡으려고 아우성치기도 하며, 몸은 우리들이 우리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조용히 초대한다. 몸을 가지고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몸 전체에 주입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살아 있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깊이 느끼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단순히 몸짓과 움직임, 자세, 춤을 표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에 완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완전히 깨어있던 분이였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온몸과 영혼을 다해 그분의 사랑에 대해 완전히 깨어있으라고 요구하신다. 춤을 출 때 우리는 세상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며, 하나님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한 분을 발견하는 경이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는 장소임을 내가 발견하도록 원하시는 것이다.

74) 라종렬, 「바울의 인간이해와 영적예배의 관계-몸과 영혼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p.111

그러므로 우리는 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엮매고 있는 모든 것들⁷⁵⁾을 풀어주고 표현해주며 비우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II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오(proskyneo)”는, 이것은 “몸을 부복시키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입맞추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이 단어는 깊은 흠모, 경의, 경배의 의미를 내포하곤 한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세가 세워지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면서도 우리와 친밀한 연합을 즐기시는,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분을 섬기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옆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손을 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신구약 모두 광범위하게 몸을 포함시키는 다양한 자세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산을 되찾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몸으로 드리는 신성한 기도의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자세와 몸짓이란 우리가 마음과 영과 몸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선물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응답을 얻기 위해서 특정 자세만을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나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한 자세를 몸으로 표현하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신약 성경은 또한 춤이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증거한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시대 까지 춤이 기쁨의 표시로 이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누가복음15:11-31)에는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잔치 소리를 듣는 장면이 있다. 이것은 기쁨과 춤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때는 축하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축하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잘 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춤보다 더한 것은 없었던 것이다.

75)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온전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인격 등을 들 수 있다.

춤은 이런 문화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분출구였다. 많은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이 춤의 존재를 소수의 구절 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를, 신약시대의 춤이 이미 우대 전통에서 내려오고 있는 춤과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신약에서 조모조목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현대교회에서 음악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부가 된 것처럼 춤 역시 그 당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였기 때문인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의 한 단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이다. 교회는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달라고 간청하고, 구한다.

몸을 통해 다른 삶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사서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동행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진실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신음과 감정의 폭발, 고통 그리고 기쁨에 주목하라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다. 완전하게 받고 완전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가장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으며, 전 인생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본이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발판을 본보기로 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조화된 예배무용이 되어야 하며, 몸과 영혼이 아름다운 춤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3. 영성의 깨달음과 개발로서의 기능

하나님께서 사람을 흠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
으니 생령이 된지라(창세기 2:7)

위의 성경구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살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믿는 이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영성을 지닌 삶이다. 영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의 자의적이고 타의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 안에서 “자유와 사랑의 영성”으로서, 그것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닮음이며 그 구체적인 삶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낸 영성이다. 성부·성령·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유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충만한 사귀고 창조행위 안에 있는 신비자인 것이다. 인간의 영성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 속성을 닮아 “사랑과 자유 안에서 사귀고 창조하는 충만한 삶” 그것이다. 그 구체적 원형모델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며(골1:15, 2:10),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한마디로 “예수의 생명을 닮아 사는 영성”이다. 예수님을 따라,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영성인 것이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인간의 몸의 영이 모두 다 그의
손안에 있도다(욥기 12 : 10)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접촉점이 바로 영이다.

“영”(spirit)이란 히브리어로 “루아흐(크) j'Wr(ruach)”, 헬라어로 “프뉴마 (pneu'ma”,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라고 하며, 모두 “움직이는 공기” 또는 “바람” 을 의미하는 어떤 실체를 가리킨다. 이 말의 사용은 사람들이 인

간의 내면에 바람을 닦은 어떤 역동적인 차원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동적인 차원인 영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과 육체를 통합하고, 통합된 상태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창조물들의 “아버지”이며, 그의 영들은 그의 사자들 즉, 그의 생명창조의 “심부름꾼들”이다. 따라서, 이 영들의 주요 기능은, 전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능(시편104:29-30)에 제한되어 있다. 영성의 기본 본질도 또한 “토후 와보후(혼돈과 공허)”의 생명 파괴적 세력으로부터 이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며 이 혼돈의 세계에 쉬지 않고(시편121:4)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살리는 기능”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창세기1:2). 이러한 주장들의 가장 확실한 성서상의 구절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인간의 몸의 영이 모두 다 그의 손안에 있도다.”의 구절을 들 수 있다.⁷⁶⁾

하나님의 형상을 닦은 영은 그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지향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며,⁷⁷⁾ 근본적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오게 하여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류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기독교인의 실존이란 결국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의 출발은 인간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 선언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과제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성은 하나님을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인격을 본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영성”인 것이다. 이러한 영성은 철저히 성서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 구약의 영성은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사는 영적 생동감이 넘치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고, 성경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체험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강림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비롯된 역동적 활동이다. 영성은 내적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매개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

76) 김이곤, “창조와 영성“, 2001, <http://www.eekon.org>

77) 양인천, 「기독교 영성의 본질과 의미」 영성의 샘, 1999, p.86

좋하는 종들이 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처럼 영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의 구현”이란 창세기의 창조목적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⁸⁾

그롬(Thomas H. Groome)은 “영성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존에의 참여 의식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타인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성령의 운동에 참여하는 의식이다”라고 한다. 또한 밀러(Randolph C. Miller)는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성서의 한 구절,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영성의 실천적 강령으로 생각한다.⁷⁹⁾ 기독교 영성이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사랑의 관계성이며 동시에 사랑의 실천적 삶인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 48).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에베소서 4: 13).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40).

위의 성경구절에서와 같이 기독교 영성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삶을 이루게 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마음과 몸과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유대기독교전통의 풍부한 신앙 유산 중 하나는 신앙을 마음뿐만 아니라, 가슴, 몸과 두 팔, 손가락과 몸의 자세들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다. 마음과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몸통과 두 팔, 두 손, 손가락들과 두 발로 드리는 기도를 계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을 주님의 선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몸의 언어, 곧 움직임의 언어를 통해 몸이 창조주와 대화를 나누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무용을 단지 세상과만 연관시켜 생각하고 기독교신앙의 표현으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무용이 오래 전부터

78) 이선교, 「영성의 신학적 이해와 영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신학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7, pp.115-116

79) 류종상,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교회, 제191호, 1992, pp.97-98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방법이 되어 왔으며 성경에서 장려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무용을 신앙의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양의 무용이 18세기와 19세기 동안 교회에서 대체로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신체와 영혼을 구분시켜 신체는 열등한 것이며 방해물이라고 간주한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육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키워왔고 이것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움직임은 수세기 동안 구약과 신약, 교회의 역사, 영성의 삶 전체에 걸쳐 기도 생활 속에 통합되어 왔고, 이것은 말보다도 오래된 언어로서, 말과 구성물, 신앙의 양식, 사회 규범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움직임과 무용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도록 도와주며, 아울러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친교를 도와주는 수단이 되므로, 예배 외에 다른 모임들에 있어서도 적합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움직임은 우리 안의 것들을 표현해 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의 사용은 우리의 믿음세계에 더욱 실제적으로 접근하여 그 깊이와 성숙을 도와준다. 간단한 리듬의 동작이나 기도를 위한 제스처, 몸의 자세를 사용하면 우리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말씀을 생각하며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영혼과 신체의 활동이 겸비되어 있어 영혼에 감정을 주고 신체를 단련시킨다. 신체적 활동 뿐 아니라 영적 수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과 육체와 감정의 일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배에 있어서의 무용은 예배의 한 형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칼라 데 솔라(Carla De Sola)⁸⁰⁾는 “기독교 무용이 관객들에게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줄뿐만 아니라 무용수들에게도 영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⁸¹⁾ 즉, 몸이 조화롭게 좌우로 흔들리고 팔들이 기도하며 올려질 때, 성도는 영혼의 작용으로 인한 경험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0) 칼라 데 솔라(Carla De Sola)뉴욕의 세인트 존 성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오메가 예배무용단의 감독이며, 매년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퍼시픽 신학교에서 예배무용을 가르치고 있으며, 「영혼이 움직인다:무용과 기도의 핸드북, The Spirit Moves: A Handbook of Dance and Prayer」의 저자임.

81)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김명숙 옮김, 「Dance as Religious Studies : 종교와 무용」, 당그래, 2000, p.217

무용은 넓은 의미에서 걷거나 기도할 때 무릎꿇기, 공동체가 하는 원대형의 무용, 그리고 매우 기교적인 무용공연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과 의미, 상징성에 주의를 기울여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움직임에 포함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전례 안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한 무용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기도나 노래에 맞추어 회중 들에게 가르치는 단순하고 상징적인 움직임들이나 기독교적인 민속무용과 행렬, 예배와 기도를 위해 창의적인 움직임을 사용하는 워크샵 경험, 또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교훈을 줄 수 있는 무용단체의 무용 등이 포함된다.

성경 적인 전통가운데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 마디마디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적 규범을 초월하는 몸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에 응답해야하며 몸과 영혼을 통합시키는 영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기쁨으로 춤을 추어야 한다. 움직임이란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춤은 보편적인 언어로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로 돌아가게 해 주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게 한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함께 모여 움직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내적인 것이나 말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야고보서 2:17)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제 행동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다.

성서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였는데, 그 때에는 예배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들이 장려되었었다. 따라서 예배 무용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많은 유형들의 결합형태로부터 표현될 수도 있다. 무용은 초기 시대부터 삶의 방식 중에 포함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전도서3:4)

구약성경에서는 신앙이 몸의 형태로 드리는 찬송으로 변형되어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함께 낙원을 거닐었으며, 솔로몬은 손을 펴서 기도했으며, 다윗은 법궤를 운반할 때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히브리인들은 다

윗이 온 힘을 다해 빙글빙글 돌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었다. 미리암은 여인들을 이끌고 감사의 춤을 추었고. 또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우리의 모든 뼈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시편35:10). 이런 몸 동작들은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투명함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⁸²⁾

춤은 하나님께는 예배의 표현이며 그의 백성들에게는 교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무용이 삶의 구성요소로서 수용되었고, 삶의 기쁨, 그리고 인간의 조물주며 구세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축하하는 하나의 방법이 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⁸³⁾

기독교 예배 안에서의 움직임은 진정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며, 사람들 사이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진정한 만남을 주선한다. 그리고 움직임의 언어는 문화적으로 분리된 것을 합치며, 마음과 영혼을 결합시켜주며, 기쁨과 슬픔, 환희와 애痛的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2) Snowber, Celeste "Dance with Wonder", 2002CDFK(한국기독교무용연합회)Seminar

83)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김명숙 옮김, 「Dance as Religious Studies : 종교와 무용」, 당그래, 2000, p.28

4. 전도와 선교의 기능

예배 안의 무용은 그 자체가 메시지이며 불신자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놀라운 힘을 가진다. 예배무용은 성숙한 신앙단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며, 신앙이 없는 이들도 찬양활동을 통해 마음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며,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하는 자면 권위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활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 5-9).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이며, 예배는 성령의 개인적 체험과 신유 및 축사와 함께 나타나는 성령사역의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부름 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다. 혼자가 아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체적인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예배의 중요한 특징이다.⁸⁴⁾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갱신시키고 부흥시킴으로써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다.⁸⁵⁾ 그리고 움직임이 있는 살아있는 역동적 예배는 성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도와준다.

슈나이더(Howard Snyder)가 지적한 것처럼 “교회는 예배의 영적, 육적, 역동성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배 안에서의 무용은 말과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움직임이다. 성령이 역사 하는 움직임이 있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전체 분위기를 휩쓸며,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살아나는 특징을

84) 김영한, 「기독교 영성과 예배」,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8, p.113

85) 명성훈, “교회성장에서의 성령의 역할”, 순신대논문집 4, 1993, p.191

갖는다.

예배 무용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 안의 무용은 참여자의 행복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예배 참여를 볼 때 비록 기독교적 회심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영향력을 주는 것 또한 예배무용의 기능이자 신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몫인 것이다.

예배무용을 통해 참석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체험을 하게 되며 예배 참여자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다. 병자가 치료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찾아와 성령의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격려를 받는다. 상처받은 과거의 속박에서 풀려나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헤이포드(Jack Hayford)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 하신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천국의 다스리는 영광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으로서 임하게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을 모셔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놀라운 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 하는 움직임이 있는 예배는 성도들의 삶을 갱신시키고 천국을 체험케 하는 현장이 될 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자극하며 믿음으로 유도하는 교회성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또한 예배의식에 있어서 성찬과 춤의 효과는 우리가 모든 생명체의 근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예배 때의 춤과 영성체⁸⁶⁾는 우리가 물질적 본질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

86) 영성체(領聖體) : 가톨릭에서, 성체 성사를 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후만찬의 기념체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그리스도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서 신비롭게 하느님께 바치는 신약의 유일한 제사며 성찬이다. 제사의 행위 중에는 제물로 바쳐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이것을 음복(飮福)이라 한다. 미사의 행위 안에서도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는 받아 마셔라"한 예수의 말씀과 같이 제찬봉령(祭餐奉領)이라고도 하는 영성체(領聖體)가 있다. 따라서 미사는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

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베소서4:11-12).

무용과 움직임은 교육이나 전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본 관례와는 거리가 다소 있지만, 이것은 무용이 교회의 기능을 돕기 위해 성령이 부여해 준 교육과 전도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도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는 교회의 내적 갱신과 함께 성령의 역사⁸⁷⁾며,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삶에 역사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결국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과 연결되어 있다. 성령의 '권능'은 '증인'이라는 말과 항상 맞물려있다(사도행전1:8). 슈나이더가 말한 것처럼 선교적 갱신이 있을 때 교회의 진정한 갱신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⁸⁸⁾

만 성찬의 잔치다. 봉헌된 제물을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의 행위는, 제물을 받으시는 하느님과 제물을 바치는 자들과의 일치를 이루게 하며, '같은 빵과 같은 잔'을 즉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모든 이로 하여금 성신의 힘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미사 성찬기도문 참조).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느님과 인간과의 주고 받는 통교가 이루어진다. 즉 하느님은 인간에게 구원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 급기야는 당신 자신을 주시며, 인간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그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미사성제인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순례자의 목적지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영광과 승리의 축제를 미리 맛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http://www.catholic.or.kr/goodnews/default.html> 발췌

87) 신약성서는 성령의 활동으로 사도들이 세상 끝까지 투신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신자들과 공동체에게서 성령은 삶과 기도와 일치의 원천이다. Fouillous, Danielle외, 김애련 옮김, 「성서문화사전」, 솔 출판사, 2001, p.370 :

88) Jones, Mary , 박영애 편역, 「크리스천 댄스」, 도서출판 바실, 2000, p.32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교회는 성령께 인도함 받는 전도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우리 모두는 선교가 교회의 속성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보내시는(a sending God) 하나님이시다”⁸⁹⁾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전도에 관한 핵심을 네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전도는 전도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필요한데 이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렬한 관심”이어야 하며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해야 하며 셋째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전도의 주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진정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 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함을 그는 설명한다.⁹⁰⁾

또 다른 이유는 전도야말로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길이 되기 때문이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비록 온전하게 선교의 역사가 실행되지 않더라도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전도와 선교는 중심 테마가 되어야 한다.

예배무용의 사용은 좌절 속에서도 자신들의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의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열을 짓는 동작을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을 상징한다.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인 것이다.⁹¹⁾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 네 마음을

89) John R.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1975, p.211

90) Stott, John R. W., 김성녀 옮김. 「존 스토틀의 복음 전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p.7

91)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김명숙 옮김, 「Dance as Religious Studies : 종교와 무용」, 당그래, 2000, p.67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마가복음 12:30).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말과 침묵, 힘과 행동,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으로 드리는 무용과 기도의 움직임은 예배를 표현하는 의미 깊고 상징적인 방법인 것이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다.⁹²⁾

앞에서도 보았듯이 예배에서의 움직임의 사용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성숙을 도와주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며 영혼에 감정을 주고 신체를 단련시킨다. 또한 예배 안에서의 움직임은 신체적 활동 뿐 아니라 영적 수련이 되기 때문에 영과 육체와 감정의 일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경배의 집단적 형태로서의 예배무용은 신자들의 집단 의식을 고양시키며, 회중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원임을 성령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몸으로 표현하는 것, 움직임 그리고 춤의 사용은 더 이상 교회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각각의 몸짓은 우리가 성육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며 동작이 크건 작건 모두 몸으로 표현되는 기도인 것이다. 우리의 자세와 몸짓은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여준다.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준다. 우리 몸을 역사를 이루어 내는 기도에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적극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말로 드리는 기도를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몸을 통해 기도를 일깨워야 할 때가 있다. 몸은 내면적인 은혜의 가시적인 표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의식 속에 나타난 움직임의 역사를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여놓아야 하고, 교회가 몸을 통해 구체적인 표현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알아야 하며, 이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할 필요를 느끼고 실천해야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1:8).

성서에서와 같이 성령의 활동으로 사도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변화시킴을 볼 수 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사역을 수행하

92) 김영한, 「기독교 영성과 예배」,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8, p.111

기 위하여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사역에 충실해야 하겠다.

신학자인 로저 하젤톤은 “기독교 안에서의 예술은 자유의 길을 제시하고 회복시키며 진리와의 계약을 새롭게 하며, 낡은 것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것을 신성하게 한다.”⁹³⁾고 말한다. 다시 말해 문화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하나님 나라)안에 존재할 때 비로소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무용은 문화선교의 사역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전도함에 있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은혜를 주고,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되는 역사를 일으키고 성도간의 화합을 일으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제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 안의 움직임의 유익과 필요성을 상기시킬 때가 되었고, 저마다 갖고 있는 재능을 복음전도의 측면에서 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영혼구원이라는 선교의 목적을 위하여 무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93) Roger, Hazelton, 정옥균 옮김, 「A Theological Approach to Art 신학과 예술」, 대한기독교협회, 1983, p.132

I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움직임과, 기독교무용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의 움직임과 무용의 영적인 기능에 관해 살펴해보았다.

기독교에서의 무용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한때 사상적 배경⁹⁴⁾과 시대적 문제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심하게는 몸의 움직임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로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의 한 형태로서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점차 회복되고,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교회에서의 축제나 중요한 행사에 포함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춤이 사람들의 내면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사용되었고, 절대적인 요소로서 일상생활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나 축일 등으로 인한 축하행사로서도 사용되었음을 보았으며, 이러한 춤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회복과 치유를 통해 자유와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보았다. 이렇게 예배무용의 여러 가지 영적인 기능은 비단 성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예배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배의 한 형태로서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예배무용의 영적인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예배무용은 갇힌 정서와 심령을 해방시키고 몸과 영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즉, 믿음의 표현을 통한 신체와 영혼의 결합으로서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법을 가져다주며, 신체와 영혼, 개인과 사회를 위한 믿음을 통한 영적, 개인적, 사회적 치료와 강화를 위해서 예방적 치료 활동으로서도 작용한다. 또한, 예배무용은 영의 사고와 심성의 볼 수 있는 움직임으로 “영과 육의 하나됨의 생동적 표현”이다. 예배무용은 신체적인 면에서 강인한 힘과 정신력으로 사기를 높이고 영적으로도 승리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배무용은 단순한 신체적 운

94) 로마시대에 영향력 있던 스토아학파의 매우 금욕적인 사상은 육체의 쾌락을 위한 어떠한 몸짓도 허용하지 않게 되었고, 플라톤의 극단적인 이원론의 사상과 영지주의의 영향은 육체로 찬양하던 무용이 쇠퇴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동이 아니라 자유의 형성 과정이며 해방의 행위이고,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서 오늘날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다.

둘째, 기독교 예배무용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응답하는 기도의 행위이다. 예배에 있어서 움직임 하나 하나는 영적인 가치를 느끼게 하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우리의 몸, 성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즉,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 전에 하나로 뭉쳐져서 움직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무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고한 가치를 선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여야만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영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⁹⁵⁾

셋째, 기독교 예배무용은 영혼과 신체의 활동이 겸비되어 있어 영혼에 감정을 주고 신체를 단련시킨다. 다시 말해, 신체적 활동 뿐 아니라 영적 수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과 육체와 감정의 일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에서의 춤의 부활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넷째,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의 무용은 그 자체가 메시지로 불신자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놀라운 힘을 가진다. 찬양과 율동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게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배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치유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사역에 동참하며, 성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예배 안에서의 무용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예배 안에 행해지는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서도 무용과 움직임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독교 공동체 안의 교제,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더욱 효과적이고 깊이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배무용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세대에 요구되는 문화공연⁹⁶⁾의 접

95) 박영애, “기독교 무용의 중요성 및 의미”, 발레연구논집 제15집, 2001, p.94

근을 통해서 복음을 좀 더 수월하게 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96) 21세기 복음화는 전통적인 체제인 모델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기도 하며, 세계인터넷선교학회는 홈페이지(www.swim.org)를 통해 전방위적이고 구체적인 선교전략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선교 또한 시대의 사조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깔고 세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어야 하겠다. 신문기사 국민일보 2001.8 발췌 / 마준철, 「열린예배에서 본 문화 선교의 가능성」, 감리교신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8, p.84

참 고 문 헌

단행본

- Abba, Raymond, 허정삼 옮김, 「기독교예배의 원리와 실제, 대한 기독교서회, 1974
- Adams, Doug & Apostolos Cappadona, Diane, 김명숙 옮김, 「Dance as Religious Studies : 종교와 무용」, 당그래, 2000
- Berry, Madeleine, 「Body Worship :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나침반, 1994
- Dawson, Christopher, 임명방 옮김, 「중세유럽의 형성」, 형설출판사, 1983
- Fouillous, Danielle외, 김애련 옮김, 「성서문화사전」, 솔 출판사, 2001
- Francis A. Schaeffer, 김진홍 옮김, 「예술과 성경」, 생명의 말씀사, 2001
- Franklin M. Zeigler, 정진황 옮김, 「예배학 원론」, 요단출판사, 1979
- Franklin M. Zeigler, 이정희 옮김, 「목회학 개론」, 요단출판사, 1977
- Jonas, Gerald, 김채현 옮김, 「춤」, 청년사, 2003
- Jones, Mary , 박영애 편역, 「크리스천 댄스」, 도서출판 바실, 2000
- Nouwen, Henri J.M., 윤종석 옮김, 「춤추시는 하나님」, 두란노, 2001
- Niebuhr, Richard, 김재훈 옮김,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기독교협회, 1958
- Prudhommeau, Germaine, 양선희 옮김, 「무용의 역사 I」, 삼신각, 1990
- P. Tillich, 김경수 옮김, 「Theology of Culture : 문화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 Roger, Hazelton, 정옥균 옮김, 「A Theological Approach to Art 신학과 예술」, 대한기독교협회, 1983
- Sorell, Walter, 신길수 옮김, 「서양무용사상사」, 예전사, 1999
- Snowber, Celeste, 허성식 옮김, 「몸으로 드리는 기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2
- Stott, John R. W., 김성녀 옮김. 「존 스토티의 복음 전도」,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 게라두스반데르레우후, 윤이홍 옮김. 「종교와 예술」, 열화당 , 1991
- 이쿠다 사토시, 김수진 옮김, 「하룻밤에 읽는 성서」, 중앙 M&B, 2000
- L.A국제성서 신학대학, 「한.영 해설 성경」, 국제성서출판사, 1992
- 프레데릭 B.아르츠, 홍성표 옮김, 「중세 유럽의 문화유산」, 보진재,

1993

- 김소영, 「예배와 생활」,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2
김기현, 「한국교회의 예배와 생활」, 양서각, 1984
김말복, 「무용의 이해」, 예전사, 1999
김영한, 「기독교 영성과 예배」,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8
김외식, 「현대교회와 영성목회」,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문희석, 「하나님의 구속역사」, 보이스사, 1973
민석홍, 나종일, 「서양문화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박은규, 이연규, 「14세기 유럽사」, 탐구당, 1987
배소심 : 김영아, 「세계무용사」, 금광출판사, 1985
서정자, 「서양 무용예술사」,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1997
양인천, 「기독교 영성의 본질과 의미」, 영성의 샘, 1999
이상열, 「기독교와 예술」, 도서출판 한글, 1993
정장복, 「예배학 개론」, 종로서적 출판사, 1993
최래옥, 「한국문화와 기독교」,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4

학위논문

- 김경복, 「현대무용작품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마사그라함과 호세리몽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2000
김윤철,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점 및 갱신」, 목원대 신학대학원, 1999
김성일, 「현대교회예배의 이론과 실제」, 한국신학대학원, 1980
김세원, 「그리스도인의 등정적인 자아상과 신앙생활에 대한 연구」, 천안대기독교신학대학원, 2002
김은찬, 「한국교회의 찬양집회에 관한 연구」, 총신대신학대학원, 1991
구인성, 「St. Ignatius of Loyola의 영성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원, 1994
구교환, 「예배의 역사를 통해 본 오늘의 예배연구」, 서울신학대학원, 1986
고정희, 「무용이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역할: 인간소의 극복을 중심으로」, 중앙대교육대학원, 1998
노현애, 「기독교 예배무용이 선교에 미치는 영향-선교무용단을 중심으로」, 우석대교육대학원, 2003

- 나광현, 「열린예배에 대한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원, 1999
- 라종렬, 「바울의 인간이해와 영적예배의 관계-몸과 영혼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신학대학원, 2001
- 마준철, 「열린예배에서 본 문화 선교의 가능성」, 감리교신학대학원, 1998
- 변성한, 「경배무용을 통한 효과적인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실제」, 총신대선교대학원, 2000
- 변현정, 「기독교 무용예배 활성화를 위한 신도들의 인식도 조사」, 이화여대 대학원, 1995
- 박경숙, 「기독교에서의 무용의 수용에 관한 연구」, 동아대교육대학원, 1994
- 박황숙, 「기독교 전통과 무용」, 이화여대 대학원, 1987
- 배일제, 「개신교 예배에 대한 예술적 접근: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감리교 신학대학원, 1992
- 박성민, 「예배형식의 역사적 고찰」, 서울신학대 대학원, 1994
- 박경순, 「선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위치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 대학원, 1986
- 송유순, 「기독교 예배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91
- 이성실, 「설교자의 영성 훈련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원, 2000
- 이은아, 「기독교무용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2001
- 윤준호, 「기독교 신체관의 성서적 고찰」, 국민대 대학원, 2000
- 이경란, 「기독교 무용에 관한 연구」, 세종대 대학원, 1992
- 오세훈, 「그리스도적 인간관」,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4
- 이강평, 김인숙, 「그리스도교와 서양 중세무용이 가지는 이율배반적 현상」, 경희대 대학원, 1987
- 이명식,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의 교육적 기능 모색」, 감리교신학대학원, 1994
- 이선교, 「영성의 신학적 이해와 영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원, 1987
- 이윤정, 「구약예언자들의 성령의 이해」, 감리교신학대학원, 2001
- 오양록, 「기독교 영성 교육론- 예배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2000

- 조미애, 「중세후기 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88
- 조승미, 「성서를 통한 기독교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1996
- 조규청, 「기독교 문화 속에 내재된 무용의 제 양상과 그 해석 - 성서에 나타난 무용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1988
- 정성희, 「선교 공동체 유형에 관한 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97
- 전성덕, 「선교적 측면에서 본 복음과 문화」, 장로회신학대학원, 1993
- 전명주, 「Maria Harris 영성교육론의 한국적 적용」, 이화여대 대학원, 2000
- 천장자, 「Maria Harris의 영성교육론 : 종교적 상상력과 여성의 영성교육」, 이화여대 대학원, 1994
- 추용남, 「축제성을 회복한 예배에 대한 연구」, 김리신학대학원, 1980
- 최신제, 「기독교무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1996

학술기사, 논문집, 잡지

- 김신국, “전도와 선교”, 기독교 교육207, 1985, pp.27-31
- 김동선, “선교와 복음의 상황화”, 호남신학대신학이해 15, 1997.9, pp.274-306
- 김충환, “Worship, Praise and Worship dance(예배, 찬양, 그리고 예배무용)”, 신학이해 21집, 2001.5, pp.187-205
- 류종상,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교회, 제191호, 1992
- 명성훈, “교회성장에서의 성령의 역할”, 순신대논문집 4, 1993.12, pp.175-198
- 박영애, “기독교 무용의 중요성 및 의미”, 발레연구논집 제15집, 2001
- 박정희, “중세의 무용과 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연구논집 14(1986.8)
- 박준서,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 기독교사상 2월호, 기독교서회, 1979
- 이장호, “복음과 문화의 관계”, 선교와 신학 제7집,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pp.83-112
- 예영수, “기독교 문화와 선교적 기능”, 교회168, 1990, pp.167-173
- 조만진, “영혼과 몸의 문제”, 동의대학교 제28호 인문사회과학집, 1998, pp.429-449
- 장정윤, “기독교의 금욕주의적 신체관과 무용: 중세초기(300-600A.D.)와 중세말기(900-1400A.D.)를 중심으로“, 무용한국26, 1989.11,

pp.100-107

전유오, “무용인류학을 통해 본 기독교 문화와 무용예배의 가치”, 무용한국53, 1995.12, pp.83-95

최인식, “그리스도와 문화 : 문화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본 세 문화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신학대신학과선교 23, 1998. 6, pp.187-208

허일용, “성서적 예배와 예배갱신”, 한세대 교수 논총 13, 1998.12, pp.155-173

전자정보, 해외자료

김이곤, “창조와 영성”, 2001, <http://www.eekon.org>

기독교 대한 감리회 통합자료실, <http://www.kmcweb.or.kr/tong/frame1.htm>

세계인터넷선교학회, <http://swim.org>

ANM 올네이션스, <http://www.anm21.org>

프레이즈 예술신학, <http://www.praise.ac>

원어성경 엘피스학당, http://www.hope-ind.com/Elpis/Elpis_home.htm

CDMB목회자료실, <http://sermon.cdmb.com/main.htm>

Lucinda Coleman , “Worship God in Dance”, <http://www.pastornet.net.au/renewal/journal6>

Joan Caldwell, “Dance and Worship Page” in :<http://www.geocities.com/Heartland/Pointe/9589/dancewor.html>

John R.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1975, p.211

Snowber, Celeste “Dance with Wonder”, 2002CDFK (한국기독교무용연합회)Seminar

ABSTRACT

Study on the Spiritual Function of Christian Worship Dance

Kim, Hyun-Jeong
Major in dance theory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Bible records various dances that show the Hebrews gladness in praising God. The dance in the Bible was performed in daily life or festivals as an absolute component. It was also a mediator between God and the Hebrews, in order for them to get closer to the Lord as the God of Israel. The Hebrews praised and thanked God by dancing during the service and in the church during festivals, suggesting that the dance was one of the ways of expressing their gladness in the form of prayer.

The dance in the Bible was a religious dance performed during the holy religious service. It was a refreshing sight in the public service of ancient Hebrews. As the original version of the Bible shows, various forms and measures of dance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objective of the dance.

Given the history of the dance that have changed alongside human history, a Christian worship dance as one of the religious dances was created based on Christian theology and used as a tool to praise God during the service. Today, it is being adopted in the Korean church, spreading throughout the nation.

We can see in the Bible that the dance was performed to express peoples joy, praise God, and celebrate war victory or a memorable day. This worship dance not only seeks to thank and praise God for His grace but also gives

people who have physically and spiritually erred an opportunity for healing and restoration. More importantly, it paves the way to freedom, restores humanity, links the body and the spirit, and trains people physically and spiritually to enable them to experience directly the unity of the spirit, body, and emotion.

Against this backdrop, people reveal Gods glory and honor, experience Gods love through praise and dance, and, more importantly, gain inspiration and encouragement to proclaim Gods love and His word all over the world when they use the dance wisely during the service.